M45-52 / 2004. 12

월간

세계농업뉴스

제52호 (2004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뉴스」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 : //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목 차

Ⅰ. 농업 농정 동향

중국, 한중일 FTA의 초보적 효과분석 ····· 3

중국, 2004년도 쌀 수급전망 발표 ····· 12

일본, 필리핀과 FTA 체결 합의 ····· 14

미국, WTO 면화패널 결정에 상고 ····· 18

영국, 유기농식품 판매액 대폭 증가 ····· 25

EU의 공동농업정책 개관 ····· 27

FAO, 세계 식량전망 발표 ····· 51

Ⅱ. 농산물무역 동향

미국, 2005년도 농산물무역 전망 ····· 57

Ⅲ.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2004년 12월 농업협상 동향 ····· 77

DDA, 기본골격에 대한 G10의 입장 ····· 80

Ⅳ.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4. 12) ····· 87

Ⅴ. 통계자료 ····· 101

농업 농정 동향

중국, 한중일 FTA의 초보적 효과분석

중국, 2004년도 쌀 수급전망 발표

일본, 필리핀과 FTA 체결 합의

미국, WTO 면화패널 결정에 상고

영국, 유기농식품 판매액 대폭 증가

EU의 공동농업정책 개관

FAO, 세계 식량전망 발표

중국, 한중일 FTA의 초보적 효과분석

세계화가 날로 강화되는 동시에 지역경제 통합 추세도 점차 뚜렷해진다. 지역경제 통합은 인접 국가 또는 지역간에 공동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향으로서 그 핵심은 회원국간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많은 무역 기회를 창조하여, 상품, 자본, 기술, 서비스와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게끔 하는 것이다. 세계화의 배경 하에 지역경제 통합 추세가 나타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세계 경제발전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적으로 인접한 경제기구들이 동맹을 결성하여, 역내 이익최대화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액은 각자의 시장 규모(GDP)에 정비례하고, 그들간 거리 또는 교역비용(관세)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은 모두 지역경제조직에 가입하였지만, 동아시아에 위치한 세 개의 국가, 즉 GDP가 세계 2위인 일본, 7위인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은 제외), 11위인 한국 등은 지역경제조직을 형성하지 못했다. 한중일 3국의 2003년도 GDP는 6억 3,400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17.4%를 차지한다. 3국이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와 무역성장이 빠른 지역이지만, 무역자유화 진행과정은 비교적 늦다. 이는 우리들이 지역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면에서 낙후하고, 이에 대한 3국의 임무가 막중하고 길은 멀다는 것을 뜻한다.

1. 한중일 FTA 체결의 유리한 조건

1.1. 3국 경제의 중요성

3국의 경제는 모두 외향성 경제로서 무역은 각국 경제발전에서 아주 중요하다. 3국은 모두 WTO의 다자간 체제하에서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일본의 평균 관세는 2.9%, 한국은 7.9%, 중국은 9.8%이다. 중국의 명목관세가 일본과 한국보다 높지만 실제적으로 징수하는 관세는 아주 낮다. 평균 관세는 6.8%에 불과하다. 그것은 중국에서 가공무역수입, 외자기업의 설비수입, 기술개조 수입은 기본적으로 면세이기 때문이다.

1.2. 3국간 경제관계의 밀접성

1980년대 이래 3국간 경제 연계는 점차 밀접하였고, 무역에서의 의존비율도 상승하여 상호 중요한 무역파트너로 되었다.

표 1 중국의 10대 무역상대국

수출상대국					수입원				
국가	2003		2004년1-9월		국가	2003		2004년1-9월	
	억달러	점유율	억달러	점유율		억달러	점유율	억달러	점유율
미 국	924.7	21.1	885.1	21.3	일 본	741.5	18	697.9	16.9
홍 콩	762.9	17.4	702.0	16.9	유 럽	530.6	12.9	526.4	12.8
유 럽	721.5	16.5	753.8	18.1	대 만	493.6	12.0	474.4	11.5
일 본	594.2	13.6	520.0	12.5	동남아	473.3	11.5	455.0	11.0
동남아	309.3	7.1	299.5	7.2	한 국	431.3	10.4	456.3	11.1
한 국	201.0	4.6	193.0	4.6	미 국	338.6	8.2	337.2	8.2
대 만	90.0	2.1	93.9	2.3	홍 콩	111.2	2.7	84.8	2.1
호 주	62.6	1.4	61.4	1.5	러시아	97.3	2.4	92.6	2.2
러시아	60.3	1.4	58.7	1.4	호 주	73.0	1.8	83.1	2.0
캐나다	56.3	1.3	58.3	1.4	브라질	58.4	1.4	65.9	1.6

자료 : 중국 해관통계

중국의 통관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중국의 가장 큰 수입국이다. 2003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742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입액의 18%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제4대 수출시장으로 2003년 중국에서 일본에 수출한 액수는 594억 달러로 12.5%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무역 적자는 147억 달러였다. 중국 상무부 추계에 의하면, 2004년 중국과 일본의 수출입무역은 1,7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중국의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6대 수출시장과 5대 수입국이다. 2003년 양자간 무역액은 632억 달러에 달하였다. 중국의 무역적자는 230억 달러였다. 2004년 1월~9월간 한중 무역은 전년의 전반 수준을 초과하여 649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4년에는 9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중국의 무역적자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 흑자를 실현할 수 있는 래원지로서 수출시장이며 중국의 경제성장이 일본과 한국의 경제성장에 반드시 유리함을 설명한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한국은 모두 중요한 무역파트너이다. WTO에 의하면 2002년 중국은 일본의 3대 수출시장과 1대 수입시장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12.6%, 18.3%로서 WTO가 설립된 1995년 대비 대폭 성장하였다. 한국은 수출입 두 측면에서 모두 일본의 4대 무역 무역파트너이다. 2002년 일본이 한국에 286억 달러를 수출하고 155억 달러를 수입하였다. 일본은 무역흑자 131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아쉽게도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수치는 찾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수치로 보면 한중일 무역이 한국에 대한 중요성도 못지 않게 높을 것으로 본다.

표 2 일본의 주요 무역상대국

	상품수출 점유율(%)					상품수입 점유율(%)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대만	중국	미국	유럽	한국	인도네시아
1995	27.5	15.9	7.5	7.0	6.5	10.7	22.6	14.5	5.1	4.2
2002	28.9	14.7	12.6	6.9	6.3	18.3	17.4	13.0	4.6	4.2

자료 : WTO

1.3. 3국의 지역적 인접성

1.4. 3국 경제의 보완성

3국은 자연자원, 노동력자원, 과학기술, 산업구조면에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경쟁성보다 크다. 경제무역관계를 밀접하게 하여 지역 내에서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각자에게 모두 유리하다. 무역측면에서 볼 때 상호 보완성도 뚜렷하다. <표 3>은 각 제품의 무역경쟁지수(TCi)를 반영한다. TCi=(Xi - Mi)/(Xi +Mi)이다. Xi, Mi는 i국 제품의 수출과 수입액을 나타낸다. TCi 는 한 i국의 순수출액이 제품 수출입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그 수치는 -1과 1 사이이다. 지수가 나타내듯이 3국의 우위 제품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성이 경쟁성보다 큼을 알 수 있다.

표 3 중일한 일부 제품에 대한 무역 경쟁지수, 2002년

	식품과 생가축	음료와 연초	비식용 원료	광물연료 및 윤활유	동식물 유지	화학제품 및 화공제품	원료에 따라 분류한 제조품	기계와 운송설비	잡다한 제조품	미분류 한기타 상품
중국	0.47	0.43	-0.68	-0.39	-0.89	-0.44	0.04	-0.04	0.67	-0.41
일본	-0.91	-0.85	-0.71	-0.96	-0.78	-0.13	0.21	0.50	-0.20	0.44
한국	-0.57	-0.33	-0.70	-0.66	-0.88	-0.01	0.17	0.30	-0.12	-0.29

자료: 程佳韞,중일한 FTA 체결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요소,「안후이(安徽)공업대학 신문(사회과학편)」2004.5, 35P.

표 4 중일한 FTA가 복리와 GDP에 대한 영향

	경제복리수익(억달러)	GDP성장(%)
중국	47-64	1.1-2.9
일본	67-74	0.1-0.5
한국	114-263	2.4-3.1

<표 4>는 중국 대외무역부에서 발표된 수치이다. 원문에서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FTA를 체결하면 각자의 복리가 증진됨을 설명할 수 있다. 필자는 시간과 수치에 따른 복리 증진상황을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2. 한중일 FTA의 가능한 모델

2.1. 모델

세계 지역경제통합은 다양한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 전형적인 모델은 유럽(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다.

EU는 공동시장을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단일시장, 상품, 인적, 서비스, 기술들이 지역 내에서 자동적으로 이동하도록 발전시켰으며, 단일화폐를 발행한 세계적으로 경제일체화 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조직이다. 또한 경제뿐만 아니라, 현재는 정책외교 등 각 분야로 확대 발전한 동시에 헌법협정 건립을 시도하면서 연방제도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EU 회원국은 상호간 격차가 적고, 또한 40여년의 발전과정을 경험하였다. 중국, 일본,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차이가 존재하는 한 EU 모델을 사용할 수가 없다.

NAFTA는 발전수준이 서로 다른 3국이 체결한 FTA로서 지역 내에서는 관세와 기타 무역제한을 취소화 한 동시에, (1) 지역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회원국들은 각자가 독립적인 관세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고, (2) 역내에서는 원산지표시를 실행한다. 지역내 또는 주로 지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야만 자유무역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정책을 실시하여 발전수준이 다른 회원국들은 모두 혜택을 보게 되었다.

ASEAN 회원국들도 발전수준이 서로 다르다. 회원국들은 주로 "공동으로 효과적인 우대관세계획"을 실시하여 관세를 차츰 낮추도록 하였다. 기존의 6개 회원국들은 2000년에 85%에 달하는 공동우대관세를 0-5%로 인하하였고, 2001년에 관세인하 범위를 90%로 확대하였으며, 2002년에는 100%로 확대하였다. 동시에 신회원국에 대해서는 더 긴 이행기간을 부여하였다.

한중일은 NAFTA와 ASEAN의 경험으로 FTA를 체결할 수 있다. 관세를 차츰 인하하고, 비관세조치를 해소하며, 원산지표시를 실시하고, 지역이외의 무역에 대해 각 회원국들이 독립적인 무역정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2.2. 원칙

(1) 호혜평등, 협상 일치의 원칙
(2) 점진적 발전, 안정적 발전의 원칙
(3) 3국의 WIN · WIN 원칙

2.3. 일정

한중일 FTA 체결은 아직은 연구단계이다. 3국 정부는 아직도 한중일 FT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표도 없는 실정이다.

가능한 시기를 고려하려면 WTO 다자간협상 시간표와 APEC 시간표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늦어도 APEC 자유무역협정이 건립되기 전에 중일한 FTA를 건립하여야 한다. APEC 지도자들이 가상하였던 대로 2010년에 선진국 회원국, 2020년에 개발도상국들로 최종적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실현한다는 시간표가 순조롭게 실현된다면 3국은 반드시 이 기간 전에 FTA를 건립하여야 한다.

APEC을 중심으로 한 FTA가 체결된 이후에 한중일 FTA를 거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때문에 2015년 이전에 한중일 FTA를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부터 3～5년간 협상과 협의를 진행하고, 5～7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 점차 무역제제를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WTO 협상이 추진됨에 따라 3국은 긴박감을 느껴야 하며, FTA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2.4. 협력 추진

⑴ 우선 3국에서 인접한 일부 지역간 협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여, 전반적인 협력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⑵ 부분적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하도록 한다. (중국과 동남아연합국의 '조기관세철폐조치'와 유사) 예를 들면, 통관, 물류, 은행, 보험과 운송 등 통일된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측면에서 우선적인 협력을 실행한다. 단기상업업무(15일)를 목적으로 하는 인적 왕래에 대해 비자면제 등 혜택을 실행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일방적으로 일본에 15일 비자면제 편의를 실행하고 있다.

⑶ 논쟁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 에너지 분야이다.

⑷ 일본과 한국은 전반적인 측면에서 중국 시장의 경제적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민감분야에 대한 무역자유화

각 회원국들은 민감품목 목록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각국의 민감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긴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과 한국의 농산품과 방직품, 중국의 자동차와 강철 등이다. 일본과 한국에서 단기간 내에 쌀과 기타 민감 농산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일부 공업품(자동차, 강철)도 단기간에 완전 개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각자 민감품목에 더욱 긴 이행기간을 부여하여 관세양도를 진행할 수 있지만 관세를 인하하지 않을 수는 없다.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일정표를 정해야 한다. 한 회원국에서 쌀 관세를 490% 수준에서 삭감하지 않고 유지하는 반면에, 다른 회원국에서는 이에 대한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이러한 모델의 자유무역협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적절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

(1) 영토와 역사문제가 발생하는 정치적인 마찰을 해소하여야 한다. 중일 또는 한일간에는 모두 영토, 해양 전문소속 경제구역과 역사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등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감정적 충돌과 정치외교적인 마찰을 초래하게 된다. FTA는 싸우는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체결될 수 없다. 때문에 3국의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은 지혜롭게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적어도 이러한 문제가 양자간 협상에 영향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무역보호는 무역논쟁을 초래한다. 농업은 동아시아 3국에서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힘든 일부 분야중 하나이다. 과거 몇 년간 한한, 중일간에 농산물 무역분쟁이 발생하였었다. 만약 FTA를 체결하면 동아시아 농업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는 긴급히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에 3국 공동연구팀이 3국의 1,000여개 기업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에서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3국 기업가들은 FTA를 체결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중국은 85.4%기업, 일본은 78.7%의 기업, 한국은 70.9%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3국간의 FTA 체결을 지지하였다. 또한 80%에 달하는 기업들이 3년내에 FTA 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3년 7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 청화대학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동북아지역은 점차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 GDP는 세계의 20%를 차지한다. 10년 혹은 15년 지나면 30% 초과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북경 학생들은 기차표를 사서 평양, 서울, 부산을 거쳐 도쿄까지 여행을 할 수가 있다. 이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동북아 미래상이다.”

최근, 유럽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점차 동방으로 확장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확대되고 있으며, 미주자유무역협정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인류문명 발상지중 하나인 동아시아는 여전히 흩어진 모래이다. 동북아 3국은 긴박과 위기의식으로 역사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

자료 : 세계농정연구원,「동북아 농업협력가능성에 관한 국제심포지엄」발표자료, 2004. 12. 8～10, 제주시
(唐忠・曾寅初・金洪云, 중국인민대학)

중국, 2004년도 쌀 수급전망 발표

중국 농업부 쌀관련 부서는 2004/05년도 쌀 생산 전망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중국의 쌀 생산량은 1억 2,363만톤(정곡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 전년에 비해 9.9% 증가하고, 쌀 소비량은 1억 3,828만톤으로 전년에 비해 약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05년도 중국 쌀 생산량은 여전히 소립량을 하외하고 있으며, 재고량은 전년도보다 30% 감소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 2004년 중국 벼생산량은 10% 이상 증산 예상

중국은 2004년 11월에 접어들어 강남 및 해남 대부분 지역과 화남 북부의 일부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1~3℃ 높아 만생종 수확에 다소 늘어났다. 그러나 11월 중순 화남지역의 중남부 일대가 강수량이 평년보다 50%이상 적어 한해가 비교적 심하게 나타나 광동성과 광서성의 일부지역에서는 만생종 생산이 줄어 들었다.

중국은 1997년 벼 생산이 사상 최대인 2억 74만톤(조곡기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해마다 생산량이 감소하여, 1998년에는 1.0%, 1999년 0.1%, 2000년 5.3%, 2001년 5.5%, 2002년에는 1.7% 감소하였고, 2003년에는 8.2%나 감소하였다. 2003년도 벼 생산량은 1억 6,023억톤으로 1997년 생산의 80%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수매가 인상과 같은 정책부양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쌀 생산량은 증가세를 회복하였다. 2004년 벼 식부면적은 2,897만ha로 전년에 비해 9.3% 증가하였으며, 벼 생산량은 1억 7,769만톤으로 전년에 비해 10.6% 증가하였다.

2. 2004년 10월까지 쌀 수입 대폭 증가

중국 해관총서에 근거하면, 2003년 10월분 중국의 쌀 수입은 6만 7,800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45.9배나 증가하였으며, 전월에 비해 6.9% 증가하였다. 수출은 2만 4,000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8.0% 감소하였고, 전월에 비해 53% 증가하였다.

2004년 1월에서 10월까지 중국의 쌀 수입 누계는 61만 8,900톤으로 전년에 비해 217.0%나 늘어났으며, 수출 누계는 81민 200톤으로 전년에 비해 61.2% 감소하였다. 그러나 순수출 누계는 191,200톤으로 여전히 순수출국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은철 parkec@hanmail.net 010-3077-8706 농림부)

일본, 필리핀과 FTA 체결 합의

일본은 현재 싱가포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바 있으며, 또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세안(ASEAN)과 정부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29일 필리핀과 FTA 체결에 합의하였다.

1. 경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은 2003년 12월 11일 도쿄 회담에서 2002년부터 시작한 양국간의 경제연대협정(EPA)을 근거로 하여 2004년 조기에 협상을 개시, 합리적인 기간내에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동 협정이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간의 포괄적인 경제연대를 구축,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ASEAN과는 2005년 4월에 EP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2004년 2월부터 양국 정부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 양국 정상이 회담하여 EPA에 대체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양국은 지금부터 협정을 완성하기 위해 조문 교섭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확인하였다.

2. 관련 분야

이 협정은 일본과 필리핀간에 물품, 인력,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촉진하여 쌍방간의 경제활동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적 재산, 경쟁정책, 비즈니스 환경정비, 인재 육성, 정보통신기술 및 중소기업 등의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연대를 추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있다.

양국은 협정이 체결되면 본래 가지고 있는 상호보완성을 발휘하고, 양자간의 경제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분야는 관세철폐와 같은 무역문제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이르는 소위 경제연대협정(EPA)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있다.

⑴ 물품무역
⑵ 관세수속
⑶ 서비스무역
⑷ 투자
⑸ 인력 이동
⑹ 협력
⑺ 지적 재산
⑻ 경쟁정책
⑼ 상호승인
⑽ 비즈니스 환경정비

3. 농산물에 대한 합의사항

일본은 필리핀과의 FTA는 아시아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에 해당된다. 그래서 일본 농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수입선 다변화와 필리핀 농가의 생활향상에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의의 특징은 일본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발효이후에 재협의하기로 결정한데 있다. 쌀을 비롯하여 맥류, 유제품은 관세철폐에서 제외하였으며, 사탕, 소고기, 돼지고기, 파인애플 통조림 등은 재협의 하기로 하였다.

필리핀의 관심품목인 파인애플은 경량품목에 한해 무세의 수입할당제도를 도입하여, 1년째 1,000톤에서 5년째 1,800톤의 할당량을 설정하였다. 또한, 현재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바나나는 발효후 10년간에 여름은 현행 10%에서 8%로, 겨울은 현행 20%에서 18%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표 1 양국간 농산물에 대한 합의내용

품목		합의내용
일 본	제외 품목	○쌀, 맥류, 유제품
	재협의 품목	○소고기, 돈육, 전분, 파인애플 통조림
	사탕	○협정 발효후 4년째 재협의
	닭고기 (11.9%)	○세율 : 8.5%로 인하 ○할당량 : 1년째 3,000톤, 5년째 7,000톤
	파인애플 (17%)	○경량 품목에 한해 무세 수입량 설정 ○1년째 1,000톤, 5년째 1,800톤
	바나나 (여름10%,겨울20%)	○소형 : 10년간 관세철폐 ○대형 : 10년간,여름 8%로 인하,겨울 18%로 인하
필리핀	포도, 사과, 배 등	○관세 즉시철폐

주 : ( ) 내는 현행 세율

그리고, 일본의 수출가능성이 있는 포도, 사과, 배 등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필리핀은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일본은 현재 ASEAN 10개국 중에서 필리핀 이외에 이미 싱가포르와 협정 발효중이며,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나 금년중에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나머지 ASEAN 6개국과는 2005년 4월 개별적으로 협상을 개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이들 국가와의 협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WTO 면화패널 결정에 상고

미국의 면화 프로그램에 대한 브라질의 제소에 대해 2004년 9월 8일 WTO 패널의 판정 결과가 공표되었다. 이 결과에 대해 미국 정부는 즉각 불복의사를 표명하고, WTO에 대한 상고 검토에 착수, 10월 18일에 패널 재심을 요청하고 정식으로 WTO에 상고하였다.

당초 패널은 미국의 면화에 대한 국내보조와 수출신용제도가 WTO 위반일 뿐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쌀 등 다른 작물 프로그램도 위법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농업협상과 2006년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차기 농업법 심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 상고에서 전면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패널에서의 쟁점과 미국의 상고 내용을 정리한다.

1. 10월 18일 상고서의 쟁점

미국은 10월 18일 WTO 패널 판정에 대한 상고에서 1차 판정 결과에 대해 거의 전면적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정에서 쟁점이 된 현행 면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곡물 프로그램도 WTO 규정상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져, 만일 미국이 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농업법 프로그램을 대폭 변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1. 허용보조(Green Box) 정책의 요건

패널 1차 판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미국 정부가 “무역을 전혀 왜곡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왜곡한다”며 허용보조 정책으로 스스로 분류하고 있는 자국의 면화 등 생산자에 대한 직접보조에 대해 패널이 “이러한 보조는 허용대상정책과 합치되지 않고, 따라서 우루과이 라운드(UR) 합의의 감축대상으로 지정된 감축대상보조(Amber Box) 정책에 포함해 계산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점이다.

그 이유에 대해 패널은 면화농가에 대한 직접보조금의 요건으로 “과수와 채소를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점을 들고 있다. 즉, 면화 프로그램은 보조금 지불과 면화생산이 분리되어 있으나, 보조금이 없는 과수와 채소에 대해 생산억제를 요청하고 가격유지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작물은 생산과 분리되지 않고 있어, 당해 보조금은 이미 허용보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1.2. 감축대상보조(Amber Box) 정책의 상한 및 평화조항

미국의 허용보조(Green Box) 정책으로 실시하는 면화와 쌀 등의 생산자 직접지불이 허용보조정책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보조금은 감축대상보조 정책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패널 1차 판정의 큰 쟁점이다. 이를 전제로 산정을 하면 미국은 UR 합의의 감축대상정책으로 허용되는 상한(191억 달러)을 초과하여 지불을 하고 있는 셈이며, WTO 평화조항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평화조항이란 WTO 농업협정 13조의 통칭으로서 회원국의 국내 농업보조 및 수출보조금에 대해 UR에서 합의된 농업협정 및 감축약속을 준수하면 다른 회원국들이 해당 보조에 대해 상계관세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WTO 상의 소송으로부터 면책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이 아무리 국내 생산자용 보조금을 지출하더라도 이러한 보조금이 WTO 규범에 합치되고, UR에서 합의된 보조금 상한액수 이내라면 다른 회원국들은 미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회원국들은 미국을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패널은 브라질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의 면화보조금은 규범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국제가격을 인하함으로써 브라질 면화농가에 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브라질은 미국을 제소할 권리가 있고, 또한 미국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1.3. 수출신용제도 및 STEP 2 프로그램

또한 패널 1차 판정에서는 "미국의 수출신용제도는 WTO에서 금지된 수출보조금이며, 면화생산자와 미국산 면화를 사용하는 제조업자에게 지불되는 'STEP 2' 지불은 금지된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모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다.

이 점에 대해 미국은 "농업협정 10조 2항에 수출보조금 예외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의 수출신용제도는 이 예외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수출신용제도 등에 대해 "회원국은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수출신용보험 공여에 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작성을 위해 노력할 것 및 그러한 규율에 대해 합의한 후에는 당해 규율에 적합한 경우에만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수출신용보험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과거 OECD에서 논의된 적이 있지만, 결국에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협상이 끝났다. 이에 따라 패널 1차 판정에서는 결과적으로 농업협정에서는 수출보조금의 예외가 되는 수출신용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한 것이다.

한 전문가는 "DDA 농업협상에서 미국이 수출신용제도에 대해 대폭적인

규율강화에 동의했기 때문에 농업협정 조항의 중요성은 약화되었다"고 지적하지만, 한편으로 이 조항에 관한 패널의 인정에 따르면 만약 미국이 향후 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WTO의 위와 같은 규율제정에 반대한다면 모든 수출신용제도가 불법보조금으로 해석되게 되어, 미국에게는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패널 1차 판정은 미국의 수출신용제도가 WTO가 금지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으로 예시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수출보조금의 예시표)의 리스트 J에 합치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리스트 J의 예시란 '수출신용제도 및 수출보증제도 등에 대해 장기적 운용에 드는 경비 및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요율에 따라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이며, 이러한 제도는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수출신용제도에 대해 리스트 J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WTO 규율에 따르면 금지된 수출보조금은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또한 1차 판정에서 패널은 미국에 대해 2005년 7월까지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미국은 WTO에서 수출신용제도에 관한 새 규율에 합의하기 전에 현행 수출신용제도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차 판정에서 STEP 2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금지된 수출보조금이며,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3조 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농업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였고, '수입물품보다도 국내물품을 우선하여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교부되는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비싼 미국산 면화가 세계시장에서도 유리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미국의 국내 시장가격과 세계 시장가격의 차액을 미국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STEP 2 프로그램은 금지된 수출보조금이라는 것이 패널이 결정이다.

또한 STEP 2 프로그램은 섬유업자에 대해서도 미국산 면화를 사용해 제조하면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어, 수입대체품 관련 규범에 위반된다고 인정되고 있다.

미국은 상고 서한에서 “STEP 2 프로그램은 수출 실적에 따라 지불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입대체품에 관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미국은 “STEP 2 지불은 국내보조 감축약속에 합치되며, 동 협정에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농업협정의 부속서 3의 7항을 인용하고 있다.

동 항에서는 ‘농산품 가공업자에 대한 조치는 당해 조치가 원료가 되는 농산품 생산자에게 이익을 주는 한도에서’ 회원국에 허용되는 무역왜곡조치의 한도액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패널 1차 판정에서는 동 조항이 WTO 회원국에게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위반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의 견해를 부정하고 있다.

1.4. 분쟁처리절차

미국은 패널 1차 판정이 문제가 된 면화 뿐 아니라 다른 작물의 수출신용제도도 위법이라고 인정한 점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라며, 이에 맞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브라질이 협의사항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는 면화 이외의 수출신용제도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따라서 패널은 면화 이외의 작물에 대해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1차 판정에서는 “패널은 다른 작물의 수출신용제도에 대해서도 당연히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데, 그 이유로서 브라질이 패널 설치단계에서는 다른 작물의 수출신용제도도 심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패널의 인식은 “설령 초기 요구단계에 없는 사항이라도

WTO는 회원국에 대해 나중에 협의사항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보다 명확한 형태로 패널 심의사항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새로운 논거가 없는 미국의 상고

미국은 패널 1차 판정결과에 대해 거의 전면적 대결자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상고서에서는 새로운 논점은 거의 없고 단순히 종래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를 들면, 상고 서한 중에서 미국은 "미국의 몇몇 국내보조 프로그램이 이른바 평화조약에 의한 보호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패널 판정은 잘못된 것이며, 법률과 그 해석에서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논거와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허용보조정책도 "1996년 및 2002년 농업법의 특정 작물 직접지불이 허용보조 정책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패널 판정은 잘못된 인식이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현행 미국의 허용보조정책은 평화조항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들은 제소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반복할 뿐으로 새로운 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패널이 허용보조정책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직불제를 감축대상보조(Amber Box)로 계산하는 데 대해서도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특정 국내보조가 허용대상 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곧 감축대상정책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 점에 대해 해석이 나누어지는 배경을 지적하고 있다.

3. 종합

WTO 규정에 따르면 상고심은 패널에 관련한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상고를 표명한 이후 9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상고의사를 공표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패널에 보고를 해야 하고, 브라질은 그 후 5일 이내에 반대상고를 해야 한다. 또한 상고공표 이후 30일 이내에 구두 심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어떤 방법이든 내년 초에는 상고심의 결론이 나게 될 것이다.

1994년에 수립된 WTO 협정은 당연히 판례(패널 판정)도 충분치 않고, 세부 해석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WTO 규정 자체도 현재 DDA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번 브라질과 미국간 분쟁처리는 실제 운용되고 있는 개별 프로그램이 허용보조정책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전례가 없는 사안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인 만큼 패널과 미국의 주장은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다. 한편, 향후 단기간의 일정을 고려하면 1차 패널 판정을 뒤집으려면 미국에게 강력한 논거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새로운 것이 거의 없는 미국의 상고서는 오히려 미국의 불리한 입장을 거꾸로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모델리티 확립을 위해 본격적인 DDA 협상을 앞두고, 이에 대한 행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패널 판정 결과가 곧 밝혀질 것이다. 그 동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http://www.zenchu-ja.org/wto.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영국, 유기농식품 판매액 대폭 증가

영국의 유기농산물 홍보 및 인증기관인 토양협회(Soi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유기농식품 판매가 작년에 비해 10% 이상 상승하였다고 한다. 유기농식품의 소매량은 현재 11억 2,000만 유로이고 한주에 200만 유로씩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률은 일반 식료품시장의 두 배에 달한다.

얼마전 동 협회는 유기농업부문 평가서인 '2004 유기농 식품·농업 보고서(Organic Food and Farming Report 2004)'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슈퍼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유기농식품 소매비율은 지난 2년동안 1% 하락했고, 점차 소비자들은 농업생산자에게서 직접 구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박스스킴(box schemes),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농가 판매장(farm shop)을 통한 유기농식품 판매량이 16%까지 급속히 성장하였고, 현재 연간 1억 80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영국 유기농산물 총 재배 면적의 반 이상이 여전히 스코틀랜드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유기농업 농가 및 식품 기업의 5분의 1 이상이 잉글랜드 남서 지방에 그 본부를 두고 있다. 유아용 비유기농 식품 시장이 소폭 축소된 반면, 유아용 유기농 식품 판매량은 6% 가까이 성장하여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재 판매되는 유아용 식품의 거의 절반 정도가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고 있다.

유기농 닭고기 판매는 계속 증가하여 2003년에는 전체 가금육 판매량

450만 마리 중 30%인 약 100만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유기농 닭고기는 슈퍼마켓에서 거의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판매가 증가한 것이다. 영국토양협회는 내년에 유기 가금류가 유기농축산 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비유기농 닭고기는 10%가 수입되지만 유기농 닭고기는 수입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유기농 시장의 모습이 모두 이러한 것은 아니다. 동 협회는 지난 몇 년간 유기농식품 수입량이 꾸준히 감소해 오고 있음에도 2003-04년 유기농 식품 수입량은 56%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유기농 쇠고기의 5분의 1이 수입된 것이고, 수확기에도 감자, 당근, 양파, 사과, 배는 대형 소매업자들에 의해 여전히 수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영국 정부는 2010년까지 수입량을 30%로 낮추기 위해 소매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동 협회 이사 Patrick Holden는 말한다. “유기농 시장은 생산자 직거래를 통해 그 지역의 신선한 고품질 제철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주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 슈퍼마켓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성향에 주목하여 매장 내에 그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품의 양을 늘려야 할 것 입니다. 그러한 유기농 식품을 공급하는 곳은 중· 소규모의 농장입니다.”

동 협회는 Marks and Spencer, Sainsbury’s, Waitrose가 수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영국 농민들에게서 유기농식품을 더욱 많이 구매하려 해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 협회는 판매를 늘리기 위한 성급한 유기농 식품 가격 조정은 의도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만약 슈퍼마켓들이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을 크게 낮춘다면, 유기농 식품 공급원인 소규모 복합 영농의 가족농들은 더 이상 슈퍼마켓에 유기농 식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Patrick Holden는 덧붙였다.

자료: 영국토양협회(Soil Association)
(채종현 pooh4514@hotmail.com 02-952-0729 지역아카데미)

EU의 공동농업정책 개관

유럽연합(EU)의 지리학적 특징은 농촌으로 대변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직업과 활동에 의해서 많은 차이가 난다. 유럽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농업·임업 형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인해 유럽의 농촌지역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EU의 지리적인 특징은 농업·농촌 개발정책의 방향을 규정짓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EU 공동농업정책(CAP)의 정의, 의의, 형성 과정을 소개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EU의 특징

토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업인 농업과 임업은 농촌 경관과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농업이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과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EU의 농업은 일차원적인 사업이 아니다. 농민들은 식량과 섬유 생산에서 토지관리, 자연 보전, 관광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농활동은 다면적인 기능(multiple functions)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1) 유럽의 현대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은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 즉, 유럽은 주요 수출자와 세계 최대의 수입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유럽의 농업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환경친화적인 생산 양식을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품질의 농산품을 제공하고 있다.

(3) 유럽 농업은 농촌공동체의 풍부한 전통과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농업의 기능을 식량을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고, 농촌공간을 삶의 공간으로서 유지하는 것에도 있다.

(4) 유럽의 농업정책은 회원국 정부들에 의해 결정되고 운영된다. EU 차원에서의 농업정책은 농민의 소득을 지지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농산품을 생산하도록 장려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농업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2. 농민의 역할

농민들이 수행하는 수많은 역할 가운데 핵심은 이들이 사업자라는 점이고, 통념과는 달리 농업은 크게 돈이 되는 사업(money-spinner)이 아니다. 농업 부문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농민들은 노동량에 비해서 적은 보수를 받고 있다. 농업 부문이 수지가 맞지 않다면 기존의 농민들은 영농 활동을 중단할 것이고, 젊은 영농인들도 농업 종사를 꺼릴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농촌 지역의 산업이 쇠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농민의 일차적인 역할은 식량의 생산이다.

이를 위해 농민들은 시간을 중시하는 관행과 현대 기술을 접목하여 훌륭한 품질의 식품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해 왔다. 요즈음 농민들은 점점 많

은 정보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과정과 마케팅 활동에 접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농민들은 토지 관리와 환경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축 후생 기술에 식품 안전성에 대한 고려도 더해야 한다. 대부분의 농가는 가족 노동력에 의존하는 소농으로, 농촌 지역에서 주요 고용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촌 지역의 유지와 환경 보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3. CAP 변천사

일반적으로 CAP은 획일적이고(monolithic) 변화가 없는 정책으로, 납세자들의 세금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이전시키는 정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CAP은 언제나 명백한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CAP은 농가의 로비 활동에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고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를 반영하여 계속 발전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의 CAP은 1960년대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3.1. 최초의 CAP

CAP은 1950년대 서유럽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서유럽은 전쟁의 피해를 입었고, 농업도 충분한 식량 생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결과 초기 CAP의 중점사항은 식품사슬(food chain) 내의 생산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식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럽 지역의 농업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초기 CAP은 농가들에게 보조를 하는 한편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생산 유인을 제공했다. 농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농가 투자 지원이나 규모 확대 지원, 관리·기술적 측면의 원조 등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다.

유럽 내 국가들이 자급자족을 달성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초기 CAP

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이로 인해 1980년대까지 주요 곡물의 만성적인 공급 과잉을 겪어야 했다. 이 중 일부는 (보조를 받아서) 수출했고, 일부는 비축하거나 EU 내에서 처분했다. 또한 농가지지수단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세계 시장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었고,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소비자와 납세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동시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0년대 리우 지구 정상회의에서는 주목할 만한 지표를 내놓기도 했다.

3.2. 오늘날의 CAP

1990년대를 거치면서 CAP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생산이 제한되면서 공급 과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직접 소득지지를 받게 되면서 동시에 시장 동향과 국민들의 변화하는 우선순위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다양한 농촌개발수단을 장려하면서 농민들로 하면서 다각화와 품질 향상을 꾀하고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인하는 농촌개발정책이 있었다. 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납세들로 하여금 CAP이 통제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었다. 그리고 2003년에 보다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

농민들을 더 이상 식량을 생산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의 CAP은 수요 지향적(demand-driven)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CAP은 소비자와 납세자들의 관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EU 농민들에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미래에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 생산량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에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새로운 CAP 체계 하에서는 소득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지원이 생산량과 지니는 연계는 약화될 것이다. 다시 말해 농민들은 생산 과정에서 환경·식품 안전성·가축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농민들에게는 직접지불의 혜택

이 줄어들 것이다.[1] 보조와 생산의 관계 완화는 통상 'decoupling'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EU 농민들은 보다 경쟁력 있고 시장 지향적이 될 것이다. 농민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향유하면서도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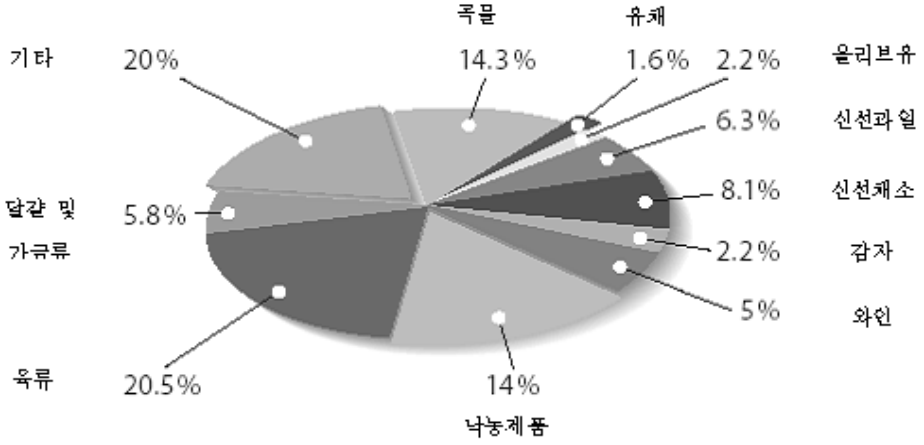
4. 자랑스러운 기록

CAP이 제시한 유인에 힘입어 농가 효율성은 개선되었고, 이 결과 1960년대 이후로 식량 생산은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특히 식량 생산과 자급률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개선이 나타났다. 동시에 농가의 소득 수준도 향상되었는데, 많은 경우 이는 농가 규모의 성장에 힘입은 바가 크고 일부의 경우는 사업체와 농가의 협업의 결과이다.

지리적 여건과 기후 덕분에 유럽 지역은 거의 모든 종류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몇몇 품목(올리브기름, 밀, 와인, 위스키 등)에 있어 유럽의 세계 최대의 생산자이다. 하지만 다른 품목에 있어서는 유럽은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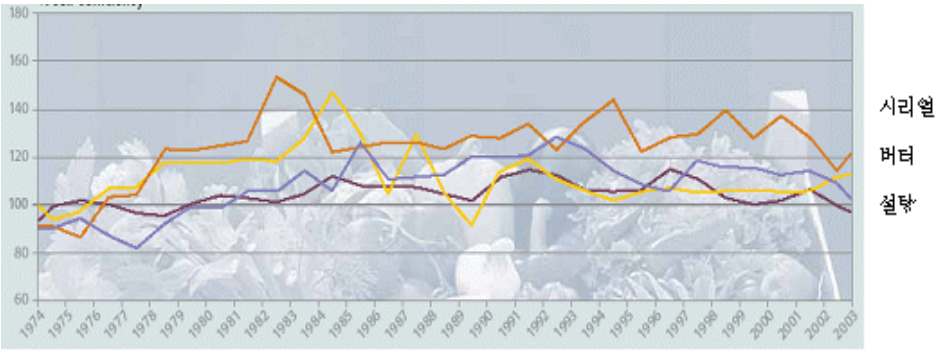
1) 이러한 조건은 상호준수(cross-compliance)라고 한다.

표 1 EU의 주요 농산물(2002년 판매액 기준 비중)



이러한 자연적 혜택과 CAP의 성과가 맞물려 농업 생산성이 급격히 신장되고 있고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유럽 지역의 대부분 작물이 자급이 가능하며 나아가 잉여 상태에 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잉여 농산물의 경우 농가수취가격(farmgate price)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부문의 비축(공공 부문의 개입 시스템)이나 수출 등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표 2 EU의 시리얼·버터·설탕·쇠고기 자급율 추이



1980-90년대 EU은 정책 수단을 통해 잉여 농산물의 생산을 제한했다. 다양한 수단들이 사용되었는데, 휴경정책의 경우 초기에는 자발적 참여를 인정했으나 점차적으로 경지 면적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휴경하게 규정했다. 이 외에도 우유 생산 할당제(milk production quotas) 도입과 과잉 생산량에 대한 과징금,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경지 면적과 사육 가축 두수의 제한 등의 수단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을 도입한 결과 잉여 농산물을 점차적으로 감축하는데 성공했다. 부분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영향을 받은 1990년대 CAP 개혁 결과 EU의 수출 보조 역량[2)]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EU은 수출 보조의 사용을 줄임과 동시에 농산물 수출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시켰다.

표 3 EU의 수출상환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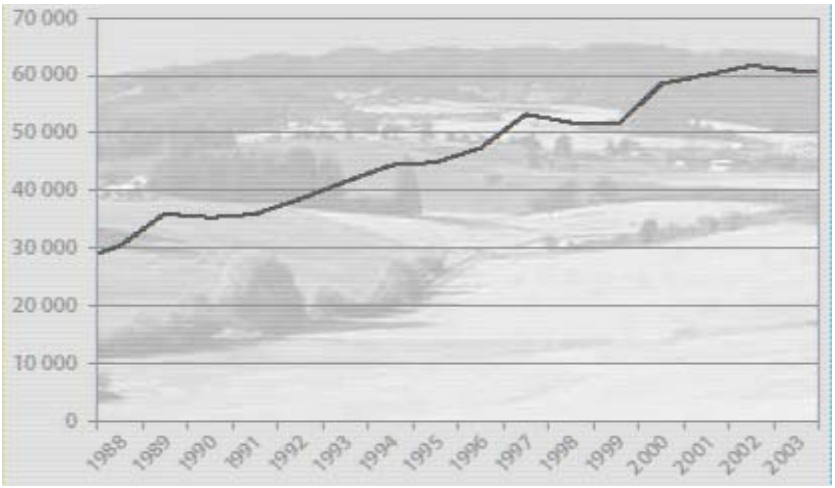
단위: 백만 Euro

2) EU에 비해 시장가격이 낮은 국제 시장에 수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EU 농산물 수출액 추이

(1988-1994: EU-12, 1995-:EU-15)

단위: 백만 Euro



5. 품질이 성공의 열쇠

유럽은 지역적 특성이 다양하고 이에 맞추어 다양한 생육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각 지역들은 구체적인 생산 방식과 지역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유럽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식품의 품질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은 이러한 고품질 속성을 유지·향상시키는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5.1.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EU은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 식품 안전성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수단, 명백한 표시제(labelling) 규정, 동식물 건강과 후생에 관한 규정, 영양 정보를 통한 식품 내 잔류 농약과 첨가제 정보 제공 등이 그 사례이다. EU 차원에서의 수단으로는 엄격한 모니터링·관리

시스템이 있고 동시에 유럽단일 시장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충분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이 보장되는 농산물 구입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CAP은 EU 단일 시장 내의 4억 5천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쉽게 식별하고 유사품에 현혹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회원국들은 CAP 하에서 재량껏 정책 수단(인센티브 제공, EU이나 국가 단위의 품질 향상 정책에의 참여 유도)을 사용할 수 있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항상 CAP의 일환이었는데, 그 효시는 1980년대의 와인 품질 표시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표시제도는 곧 과채류와 올리브기름으로 확대되었다. 현재는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가축과 육류 식별제(beef cattle identification system): 최종판매처로부터 생산 농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추적이력제(traceability)가 가능하다.
(2) 농촌개발정책 중 재정 지원: 품질 향상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지급된다.
(3)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장려한다.

5.2. 상품 식별

유달리 품질이 좋거나 특별한 식품은 생산지역이나 생산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소비자나 유통업 종사자들은 이러한 식품들의 지리적 원산지(geographical origin)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EU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세 가지 '품질 로고(quality logo)'를 개발했다.

그림 1 EU의 품질 로고

위의 로고 중 PDO(Protected Designations for Origin; 좌측)와 PGI(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ons; 중앙)는 특정 지역과 강한 연계를 지니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적용된다. PGI 로고를 부탁한 상품은 해당 지역과 관계가 있는 특성이나 명성을 가져야 하고, 가공 공정 중 최소한 한 단계는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Clare Island Salmon'이라는 명칭과 PGI 로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Clare 섬에서 잡힌 연어를 사용하고 해당 지역에서 일부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한다. PDO 로고를 부탁한 상품은 해당 지역에서만 생산되고 지역 내 생산자들의 역량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에 부착할 수 있다. PDO 로고를 부착하려면 해당 상품의 모든 가공 과정에 해당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TSG(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 우측) 로고는 타 식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전통적인 성분을 함유하거나 전통적인 기법으로 제작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품질 지표(quality indications)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원산지와 가공 방식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
(2) 유통 과정에서 고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3) 모방을 방지함으로써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 사업을 지지할 수 있다.

2004년 7월을 기준으로 EU은 약 700개의 지리적 지표(geographical indications)를 등록했다. 이와는 별도로 와인과 기타 주정(spirits)에 대해서 2000여 개의 지리적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5.3. 유기농업

유기농업은 토양의 구조와 비옥도를 유지하고 가축후생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 살충제·제초제·화학비료의 사용을 피하는 방식이다. 농민들은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오염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유기식품 가공 과정에서도 첨가제 등은 거의 사용할 수 없다.

EU 규정은 생산 지역에 관계없이 유기농산물의 확실성(authenticity)을 보장하고 있고, 유기농산물의 표시제가 정확함을 보장하고 있다. '유기(organic'나 이와 동등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식품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기농산품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 덕분에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유기농산물의 품질과 신뢰도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EU의 유기농업 분야는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부문 중 하나로 2004년 경작 면적이 440만ha(전체 경작지의 3.3%)이고 종사 농가의 수는 15만호이다. 많은 농민들이 농지를 유기생산 방식에 맞도록 전환하는 농촌개발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EU의 유기 로고(organic logo)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자발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1) 식품 성분의 최소 95% 이상이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이 공식검역규정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3) 생산자·관계 유통 종사자·검역기관의 이름이나 코드를 표시해야 한다.

6. 교외 지역에 대한 고려

EU 면적의 절반 정도가 경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농 활동이 유럽 지역의 환경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자연환경의 풍요로움과 영농 관행 간의 관계는 복잡하다. 유럽 내 많은 지역의 거주지역이 집약적인 농업에 의해 유지되는 반면 수많은 야생 동물들도 이 지역의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영농 활동은 자연환경이나 천연자원에 역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토양·수자원·공기의 오염이나 거주지역의 파편화, 야생동물 자원의 손실은 부적합한 영농양식과 관행의 결과일 수 있다. EU의 정책, 특히 CAP은 자연환경의 침식이라는 위험을 경감시키는데 주력함과 동시에 농민들로 하여금 농촌 지역을 유지하고 환경질을 보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농업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경적인 목적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그 시점부터 CAP은 점차적으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목적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CAP의 목표는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multifunctionality)을 함양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경작 지역의 환경과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전·유지하는 것을 포함해 왔다. 또한 EU 차원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s)의 승인에 관한 공동 규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였다.

6.1. 농업·환경 수단

농업·환경 계획안(agri-environment scheme)이 1992년 도입된 이해 EU은 이 개념을 꾸준히 지지해왔다. 이 계획안을 통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우수영농관행(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을 준수하고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 이상의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해 왔다. 최소 5년 이상의 농업·환경 이행 의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는

지원금을 지급했다. 환경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몇몇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안이 수립되기도 했다. 회원국들은 의무적으로 농민들에게 이러한 농업-환경 계획안을 제공해야 한다.

6.2. 보다 청결한 환경

EU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환경질을 유지·보전하고자 한다.

(1)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변화(예를 들어 단위 면적당 가축 두수 감소, 일부 경지의 휴경, 습지 조성, 조림 등)를 촉진한다.

(2) 자연 보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보조한다.

(3) 농가들이 환경 관련 법률 및 공공위생·가축후생·식물후생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토지를 적절히 관리한다는 조건 하에서 직접소득 지원(direct income payment)을 하고 있다.

6.3. 유전자변형(GM) 식품과 유럽 농업

GM 식품에 대한 EU은 입법은 1990년 도입된 이래 계속 확대·수정되어왔다. EU은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 동시에 통합된 생물공학(biotechnology) 시장을 창출하고자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을 제정했다.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례별로 평가를 거치고 난 뒤에야 GM 식품이나 이 성분을 포함한 식품(옥수수, 유채, 미생물 등)을 시장에 출하하거나 생태계에 유포할 수 있다.

7. 식품안전성에 대한 신뢰 제고

CAP 개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농업 생산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수요에도 달려있다. 사회 전반적인 요구에는 식품 위생과 안전성, 그리고 가축 후생 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1990년대 이후 CAP을 비롯한 EU의 정책은 한층 강화되어 왔다.

7.1. 식품안전성

유럽의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완전한 식품을 원한다. EU의 관심사는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식품이 균일하고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식품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지만, 1990년대 식품안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된 후(예를 들면 광우병 사태나 다이옥신이 함유된 사료 등) 총체적인 점검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EU의 식품안전성 관련 법률이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포괄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식품안전성의 첫 단계는 생산 농가에서부터 이루어진다. EU 규정은 EU 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상품 전체에 적용되고,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from farm to fork)□□모든 경로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EU의 식품안전성 전략에는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다.

(1) 식품 및 가축 사료의 안전성에 관한 규정
(2) 독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과학적 조언
(3) 규정을 강화하고 유통 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활동
(4) 식품의 생산지와 함유 성분에 대한 완전한 정보에 기초하여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식품안전성이 식품을 단일화하는 것(food uniformity)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식품안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체계는 모든 EU 회원국의 공통 사항이지만, 생산양식의 다양성과 국가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7.2. 가축건강과 후생

가축이 건강하지 않다면 안전한 식품을 얻을 수 없다. 올바른 수의학적 관행을 통해서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고 전염성이 있는 가축 질병(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독감)의 발병을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EU 정책의 우선 사

항이다. 만약이 이러한 질병이 발병한다면 동태를 주의 깊게 감시하고 확산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염된 가축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든 동물과 동물성 식품은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거친 뒤에야 EU으로 수입되거나 EU 내에서 거래될 수 있다.

점점 많은 EU 소비자들이 가축후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한 EU 정책의 근간은 가축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열악한 환경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닭·돼지·송아지 등을 사육·수송·도축하는 조건을 명백히 한 법적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엄격한 과학적 자료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축 사육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가축들이 보다 건강하고 좋은 식품을 생산한다. 물질적인 스트레스(예를 들어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수송·도축된 경우)를 받으면 가축의 건강만이 아니라 육질에도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7.3. CAP의 역할

식품안전성을 보장하고 높은 후생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CAP은 농가들에 이러한 활동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인 후생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8. 농촌공동체에 대한 지원

EU 25개 회원국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촌 지역의

면적이 EU 면적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농촌개발은 정책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임업은 농촌지역의 토지를 이용하는 중요한 산업이고, 동시에 농촌 공동체의 핵심으로서 강한 사회적 연대·경제적인 활성화·천연자원과 경관 유지의 기초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U에서 실시한 수많은 투표 결과를 보면 생기 있고 지속가능한 농촌 공간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관과 교외 지역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여행하고, 필요불가결한 자원을 얻는 공간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관은 그 지역 내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경관을 바꾸어 왔다. 영농 활동 양식에 따라 다른 경관(예를 들어 목초지, 경작지, 과수원, 포도밭 등)을 형성해 오기도 했다.

8.1. 농촌개발에 대한 자금 확대

2003년 CAP 개혁은 대농에 대한 직접지불을 줄이는 대신 이를 농촌개발정책수단으로 이전함으로써 농촌개발정책을 강화했다.

8.2. LEADER+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은 LEADER라고 알려진 공적·사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지역농촌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EU과 개별 국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 LEADER 프로그램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지역 공동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환경과 사회적인 여건에 부합하고 장기적으로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하도록 돕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LEADER 방식은 EU 내의 다른 지역들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단순한 시범프로젝트(initial projects) 이상의 효과를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농민의 수가 줄고 있고 이들은 단독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다른 사업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휴일에 농가 숙박업을 하거나 농가 안에 상점을 운영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얻을 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주변의 여건이 매력적이어야 하고, 환경을 유지·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 지역의 농가와 거주자들은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이므로 다른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농촌 환경으로부터 편익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농촌개발정책이 포함하는 범주는 과거의 전통적인□□영농활동□□보다 훨씬 넓다. 즉, 환경의 유지와 개선, 농촌공동체에 대한 지원계획, 농촌경제 전반의 발전 방안까지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8.3. 농촌개발수단

농촌개발수단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새로운 영농기술의 소개와 훈련
(2) 젊은 영농인들의 초기 정착 지원 및 고령층의 조기은퇴 지원
(3) 자문기구 설립
(4) 농업·임업 부문에 대한 투자
(5) 농가 시설과 기계류의 현대화
(6) 농민들이 EU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
(7) 농가 단위의 식품 가공 시설 설립 지원을 통한 소득 증대
(8) 품질 향상 및 마케팅 활동 지원
(9) 신규 회원국의 생산자 단체 조직 지원
(10) 산간지역 및 조건불리지역의 영농활동 지원
(11) 잠재적인 영농·임업 활동의 피해 회복
(12) 가축후생 개선
(13) 마을기반 및 농촌시설 개비
(14) 관광활동 장려
(15) 농촌지역의 기간시설 접근성 개선
(16) 농업-환경 수단을 통한 환경 개선
(17) Natura 2000 지역의 농민에 대한 보상[3)]

(18) 조림 사업 및 산림 관리 향상 수단

9. 신규회원국

2004년 5월 EU 확대로 10개 신규회원국(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이 EU에 가입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결과 얻어질 정치적 안정과 안보 그리고 유럽 내수시장이 3억 8,000만 명에서 4억 5,400만 명 규모로 확대된 것은 유럽 전체에 있어 커다란 소득이다. 규모가 커진 시장은 유럽농업과 CAP의 발전에 새롭고도 중요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EU 확대가 유럽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경이적이다. 유럽 내 농업종사자의 수는 기존의 7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증가했다. 신규 회원국의 농경지를 고려할 경우 EU는 3,800만ha의 신규 경지를 얻었는데, 이는 기존 15개 회원국 경지 1억 3,000만ha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와 더불어 EU의 전체 생산량도 10-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규 회원국의 농업 생산 잠재력이 아직 완전히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신규회원국의 농민들은 유럽 단일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안정적인 가격과 직접지불혜택 그리고 농촌개발 수단에서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신규회원국(특히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회원국) 내에서 현대화와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농업·농촌 전반을 활성화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기존 회원국(EU-15)과 신규회

---

3) EU 환경 보호 규정의 적용 결과로 농업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된 지역의 농가는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생기는 추가적인 비용과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지불금)을 받을 수 있다. Natura 2000은 철새 서식지 등의 용도로 성립한 유럽 연합내 지역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원국 간의 현격한 차이[4]는 농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농촌 지역의 낮은 임금 수준과 높은 실업률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U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미 대응을 시작했으며, 신규 회원국의 특수한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농촌개발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규회원국에는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 수준의(semi-subsistence)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최장 5년 동안 소득 지원을 해줌으로써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업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농가자문서비스(farm advisory service)를 보조함으로써 농가들이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영농을 행하는 한편, 다각화와 시설 개선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신규 회원국의 농민들이 공중보건·위생·가축후생·안전성에 관한 EU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특별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10. 국제 농산물 교역

EU는 제3세계 및 무역권역(trading blocks)들과 광범위한 관계를 맺고 있다. EU는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 최대의 수입자와 제2의 수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제3세계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쌍무협상과 자유무역협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도국에게는 특혜접근(preferential access)을 허용함으로써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10.1. EU의 수출입 현황

EU 농업은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EU가

4) 2001년 기준으로 신규회원국의 구매력 지수로 보정한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기존 회원국의 45% 수준에 머물렀다.

여러 부문에서 대규모 수출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 EU의 농산물 수출 규모는 610억 유로를 상회했다. 하지만 EU이 일방적으로 수출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EU은 중요한 수출자인 동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입자이기도 하다. 2002년 EU의 농산물 수입 규모는 612억 유로 수준이었다. EU의 순수출 비중은 1990년 이후 모든 부문에서 감소하고 있다.

10.2. 개도국과의 무역 현황

EU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은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수입량을 합산한 것보다 많다. 이를 통해 EU는 외국 농산물을 차단하는 '요새'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EU는 다자간·쌍무협상을 통해서 무역 자유화에 앞장서고 있다.

11. CAP의 비용

CAP은 40년 이상 이어져 왔고,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런 점에서 CAP 관련 예산이 EU 전체 예산·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놀랄만한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CAP 관련 비용이 제한되고 EU 단위의 다른 정책들이 개발되면서 이러한 상황도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CAP과 관련된 몇 가지 잘못된 통념들은 불식시켜야 한다.

11.1. CAP은 고비용 사업

EU가 창설된 이래 CAP은 오랜 기간 동안(EU 역사의 2/3 이상 동안) 예산·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다. 엄격해진 예산 집행 원칙, 다른 정책 부문의 활동의 활성화, 일련의 CAP 개혁의 결과, EU 예산 중 CAP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해 왔다. 현재 CAP과 관련된 연간 예산은 500억 유로 수준으로, EU 전체 예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2004년 통합 이전

EU 회원국(EU-15)의 경우,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하는 영농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내총생산의 1% 미만만을 사용하고 있다. EU 국내 총생산 중 CAP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1990년대 초 전체 국내총생산의 0.54%에서 2004년 0.43%로 감소, 2013년에는 0.33%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EU 공공지출부문에서는 감소 폭이 더욱 크다(1993-03년 동안 감소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감소분의 세 배이다).

11.2. 다른 공공 부문 지출에 비해 합리적

CAP 비용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CAP 관련 총비용은 독일의 복지관련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평균적으로 EU 시민들은 매주 2 유로 정도를 CAP에 사용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사과 1㎏이나 빵 두 덩이밖에 살 수 없다. 이 정도 비용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 받고, 농촌지역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절대로 비용이 높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의 사용 내역도 변해 왔다. 수출보조와 시장 지지(공공 비축분 등)에 사용되는 예산은 줄어든 반면,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원과 농촌개발 관련 지출이 증가한 것이다.

11.3. 예산 통제

CAP 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엄격한 원칙이 있다. 예산 제약을 둠으로써 매년 혹은 정해진 기간 단위로 지출을 통제한다. EU-15 회원국의 지출 한도는 EU 확대에 따른 변화를 고려, 2006년까지 수정된다. 하지만 CAP 중 시장정책(market measures)과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원 관련 지출 한도는 2007-13년 회기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10개 신규 회원국에 대한 직접지불(direct aid payment) 수준이 점차 증가하여 EU-15 수준에 이를 것이므로, 사실상 시장정책이나 생산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감축되는 것과 다름없다. 더불어 최근 10년 동안 세 차례 이루어진 CAP 개혁 역시 부분적으로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CAP 지출은 2013년까지 동결될 것이다.[5] 또한 새로운 재정 원칙과 통제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예산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통제를 할 것이다.

12. 소비자들의 관심 충족

많은 사람들이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곤 한다. 원래 이러한 지원의 목적은 필요한 식품을 언제나 안정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농가들이 기후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CAP은 계속 발전해 왔고, 오늘날에는 어느 때보다도 유럽 시민들의 관심사를 고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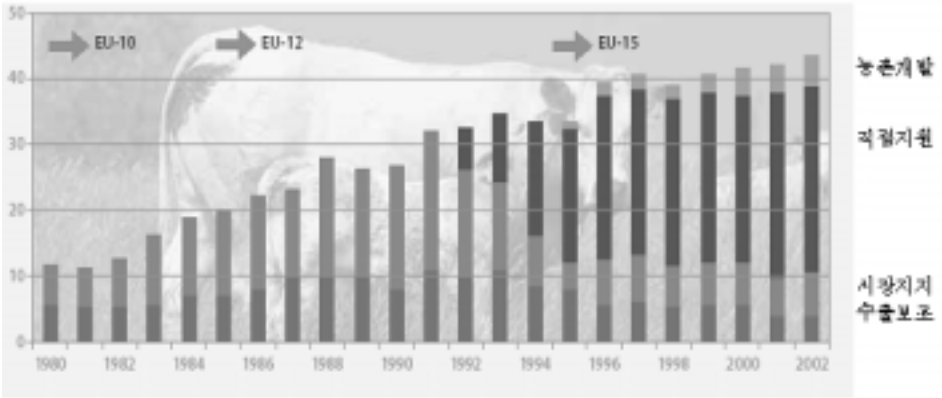
오늘날 풍요로운 유럽의 소비자들은 더 이상 식품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소비자들의 관심은 단순한 식품 수급에서 벗어나 식품생산방식과 시장 요구 사항·환경·식품 안전성·품질·가축 후생에 집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 회의·시민연대·자문기관 등을 통한 공식적·비공식적 상담
(2) 설문조사와 캠페인
(3) 지역적 차원에서 탈집중화된 방식으로 농업정책 구상과 실행에 참여

5) 실질가격 기준.

표 5 CAP 지출 추이

단위: 10억 Euro



EU 시민들은 EU 의회가 CAP을 운영하는 유일한 기관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CAP은 EU 25개 회원국들이 협력해서 운영·집행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의 역할은 이러한 집행 과정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CAP의 실질비용을 급속하게 감축하고 있다는 점은 CAP이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13. 지속가능한 농업의 촉진

농업 부문에 있어 EU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한 식품을 적정 가격에 상시적으로 공급하는 것
(2) 유럽 농민들에게 적절한 사람의 수준을 제공하고, 농산업을 현대화하고 발전시키는 것
(3) EU 전역에서 농업 활동을 지속시키는 것

CAP이 발전하고 보다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보다 정교해지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보다 중요해졌다.

(1) 농촌 사회의 후생 증진
(2) 식품의 품질 향상
(3) 식품 안전성 확보
(4)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5) 가축 후생 증진
(6) 예산 제약 하에서 효율 극대화

EU는 시민들의 요구(식량 생산, 식품안정성, 환경 기준, 농촌 환경의 유지, 개도국과의 관계, 효율성)에 부응하는 농업 모델을 정립하고 있다. CAP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속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출처: EU 집행위원회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

FAO, 세계 식량전망 발표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전망(Food Outlook)'에서 2004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0억 4,000만 톤에 달해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 재고량도 5년만에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발표하였다. FAO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생산 수준이라면 2004/05년 세계 전반에 걸친 식량 소비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999/2000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세계 곡물비축이 증가하여 5년 만에 세계 식량안보에 청신호를 밝힌다는 점을 시사한다.

1. 밀 · 잡곡(coarse grains) 비축분 증가

FAO 전망에 따르면 세계 곡물 재고분은 2004/05년말까지 4억 4,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증가분 중 대부분은 옥수수(maize)에서 기인한다. 밀 비축분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에 쌀 비축분은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FAO는 전망했다.

곡물 비축분의 보충(replenishment)은 밀과 옥수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의 대규모 곡물 수출업자들이 주도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 밀 · 잡곡 비축분 중 대규모 수출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몇 년간의 평균치를 웃돌것으로 보인다.

2004/05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이러한 증가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료용 곡물의 수요 증가이다. 2004/05년 세계 전반에 걸친 곡물 교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개도국이나 중국의 수입 물량이 증가하는데 반해 EU 곡물 수요량이 그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계 곡물 상황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인 조짐은 □□중국의 비축분 감소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점인데, 이는 생산이 다시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세계 곡물 비축분 감소는 중국의 비축분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밀·잡곡의 국제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쌀 가격은 2003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식량전망(Food Outlook)은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세계 전반적인 재고 수준이 개선되었지만, 밀·잡곡 가격은 2004/05년에도 하향세를 보일 전망이다. 쌀의 경우는 몇몇 주요 수출 국가의 생산량이 감소한 결과 가격이 안정 혹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조망했다.

FAO의 세계정보 및 조기경보체계(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담당자인 Henri Josserand는 "식량수급이 용이해지고 가격이 낮아진다면, 개도국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몇 국가의 화물 운임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2. 2004년 곡물생산 풍작

세계 곡물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최근의 전망이 나온 배경에는 잡곡 생산의 실질적 증가가 있는데, 특히 미국의 옥수수 생산이 예상 외로 증가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을 비롯한 세계 전반의 잡곡 생

산량도 4,800만 톤 증가한 결과, 연간 세계 생산 증가율은 8.5%에 달했다. 밀의 경우도 북반구에서 기대 이상의 수확량을 기록했고, 특히 유럽 지역의 평균 수확량이 기대치를 훨씬 윗돌았다. 식량전망(Food Outlook)은 2004년 세계 밀 생산량 증가분이 10.8%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3. 육류 생산과 교역

세계 육류 가격은 2004년 말에도 안정세를 보였는데, 이는 과거 질병이 창궐했던 지역의 수입 금지 조치가 철회되고 수출 가능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육류 생산과 교역량은 2005년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4. 낙농제품 수요 증가

2004년 낙농 제품의 국제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2004년 11월의 FAO의 낙농가격지수(dairy price index)는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수요, 특히 개도국에서의 분유(milk powder)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 시장에서 지방종자(oilseed)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전망인데, 이는 세계 설탕 소비량이 생산량에 비해 증가폭이 크기 때문이다.

출처: 세계식량농업기구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

농산물무역 동향

미국, 2005년도 농산물무역 전망

미국, 2005년도 농산물무역 전망

최근 미국 농업부(USDA)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2004.10-2005.9, 이하 회계연도 기준) 농산물 무역수지는 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5년 미국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63억 달러 하락한 5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 수출액 하락세는 국내외 농산물 생산증가에 따른 곡물, 유지종자, 면화 시세의 하락과 더불어 해외 수출국들의 경쟁이 급부상한데 그 원인이 있다. 수출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견과류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은 원예 농산물의 수출액은 1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밖에 낙농품, 육류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 수입액은 지난 40여 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5년에 5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2년 이후 수입액의 증가 추세는 대중적인 부가가치 품목의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

1. 서론

2005년도 농산물 수출액은 국내외 농산물 생산증가와 곡물, 유지종자, 면화의 가격 하락세, 해외 수출경쟁 심화에 힘입어 전년 대비 63억 달러 감소한 5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꾸준한 국내 경제 성장과 내수 진작에 힘입어 농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33억 달러 증가한 56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5년 농산물 무역수지는 거의 균형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1 미국 농산물 무역 현황, 2000-05년

단위: 10억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년 전망	
						8월	11월
수출	50.7	52.7	53.3	56.2	62.3	57.5	56.0
수입	38.9	39.0	41.0	45.7	52.7	55.0	56.0
무역수지	11.9	13.7	12.3	10.5	9.6	2.5	0.0

자료: 미국 농업부(USDA), 미국 농산물 무역전망

2005년 밀, 옥수수, 대두, 면화 수출액은 가격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수출량은 옥수수와 대두의 수출증가로 인해서 2004년에 비해 230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예농작물 수출 또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수출은 계속해서 제약을 받는 반면, 돼지고기, 낙농품 수출은 강세를 보이며, 가금육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 8월 전망 이후, 옥수수와 대두 수출액은 각각 9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량은 1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5년 농산물 수입액은 주로 포도주, 맥주, 과일류, 채소류, 쇠고기 수입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 가계소득의 증가 또한 수입액 증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경제전망

2005년 세계 경제성장은 공산품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인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과 세계의 성장률은 각각 3.4%, 3.5% 이상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동안 보다 최대 성장세를 보인 미국과 함께 세계의 국내총생산은 2004년에 4% 이상 성장해 왔다. 강세를 보이는 2004년

세계 경기는 물가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유가는 1980년대 초 유가파동 당시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추세에 있다. 이러한 공산품 가격상승, 금리 상승 등은 세계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1. 선진국 경제전망

2003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2004년 미국의 장기금리는 국제신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단기금리 수준이 높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05년에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 FRB)는 단기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2005년에도 계속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미 달러는 주요 OECD 회원국 통화에 비해 평가절상 되었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다소 평가절하 되고 있다. 이러한 달러화의 약세 추세는 2005년 미국 농산물 수출을 진작시키고, 수입을 둔화시킬 것이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캐나다는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약 3%대의 GDP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산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밝은 투자전망으로 인해서 캐나다 달러는 지난 1991년 말 이후 미국 달러에 비해 강세를 유지해 왔고, 캐나다 은행 또한 캐나다 달러의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단기금리를 유지해 왔다. 일본의 GDP 성장률은 2004년에 3.5%를 초과했지만, 2005년에는 2%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 경제성장의 대부분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에 기인하고 있다. 유로화의 급속한 평가절상(appreciation)으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2% 정도의 경제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2. 2005년 세계 경제성장

중국은 세계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2003년 말, 2004년의 내수의 급증으로 촉발됐고, 이로 인해 강철, 시멘트와 같은 중간재와 원유 등 원료 가격을 상승시켰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신용을 할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총수입이 2004~05년에 미국의 총수입과 필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수입증가세는 2005년 세계 경기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2004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9%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3. 개도국 경제전망

개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2004년 6%, 2005년 5.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04년 7%에서 2005년 6%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2004년 7%대에 이어 2005년에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은 5~6%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베트남은 계속 7%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칠레 등 남미의 주요 5대 국가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2004년, 2005년에 약 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은 대중국 수출 증대에 힘입어 2004년과 2005년에 약 4%의 성장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아르헨티나 경제성장률은 2004년 7%에 이어 2005년에는 4%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멕시코 경제는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력한 수출지향정책을 추진하는 칠레는 2004년과 2005년에 약 5%의 성장세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4. 환율전망

2002년 정점에 달한 환율은 2004년 8월까지 약 9% 평가절하 되었다. 2003년 여름 다소 평가절상 된 미국 달러화는 최근 평가절하되고 있고, 2005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달러화에 고정된 일부 통화의 실질가치는 평가절상되었다. 가령, 명목상 위안화-달러 환율이 고정되었을지라도, 2004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4~5%인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중국 위안화는 2~3% 정도 평가절상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 중국이 미국보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달러의 실질가치가 평가절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세계로의 식료 및 섬유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 품목별 농산물 수출전망

2005년 미국의 밀과 밀가루 수출은 밀가루의 수출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량 증가로 인해서 지난 8월 전망과 유사한 4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이후 캐나다의 밀수출 하향추세로 인해서 미국의 수출물량이 증대되었다. 밀 수출량은 전년 대비 530만 톤 감소한 2,58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4/05년 밀 생산량은 5,87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지난해의 작황보다 8% 가량 감소한 수준이며, 미국의 밀수출은 외국과의 수출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유럽, 북해지역의 생산회복으로 인해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속되고 있다. 세계와 미국의 밀 수출단가는 세계 밀 생산증가, 기말 재고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잡곡 수출은 지난 8월 전망보다 160만 톤 감소한 5,7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잡곡의 총수출액은 옥수수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인해 11억 달러 감소한 5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사료곡물의 공급증가와 미국 옥수수 생산 증대로 인해서 시세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옥수수 수출은 캐나다의 사료용 밀 공급 증대와 함께, 이로 인한 미국 옥수수에 대한 캐나다 수요 감소와 한국에 대한 미국 옥수수와의 수출경쟁 심화로 인해서 1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옥수수 시장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경쟁은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탕수수의 수출은 멕시코로부터의 수요 침체로 인해서 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5년 미국 쌀 수출량과 수입액은 각각 10만 톤, 1억 달러 감소한 360만 톤, 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통적인 장립종 쌀 시장에서 수출량 감소가 두드러지고, 기록적인 작황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유지종자 및 가공품 수출량은 대두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다소 감소한 3,580만 톤에 달하고,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수출액 또한 11억 달러 감소한 8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수출액 감소추세는 주로 수출단가의 하락과 함께, 대두 수출액의 감소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대두의 작황은 호조를 보였고, 2004/05년 생산은 8,570만 톤에 달한 8월 이후 745만 톤 증가했다. 대두의 경우, 중국의 총 수입수요는 지난해에 이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지만, 2003년의 기록적인 2,200만 톤보다 다소 초과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의 대두 수요는 사료곡물의 공급 증가와 유채의 작황 호조로 인해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5년 미국 대두박과 유지류의 수출량은 대두 작황 호조로 인해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수출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수출액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5년 미국 면화의 수출은 8월 이후 10만 톤 증가하겠지만, 수출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수출액은 31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호의적인 기후로 인해서 세계 생산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지만,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면화 생산량은 8월 이후 5%, 2003년보다 18%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 하락세에 따라 면화의 수요와 국제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5년 축산물, 가금육, 낙농품 수출액은 8월 이후 4억 달러 증가한 10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적색육과 낙농품의 수출증가가 두드러지고 있고, 최근 미국과 일본의 쇠고기 수출 재개로 인해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적색육 가운데 쇠고기 수출은 멕시코에서 돼지고기 수출은 일본, 멕시코, 캐나다에서 호조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달러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산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의 경우, 최근 중국의 무역제한조치가 철회되고, 캐리비언 연안국,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비 전통시장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수출량은 10만 톤 증가한 22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낙농품의 수출액은 무지방 분유와 치즈의 수출 강세에 힘입어 1억 6,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원예 농산물의 수출은 전년 대비 5억 달러 증가한 1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달러화의 약세, 세계 경기호황으로 인해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이후 견과류의 수출액 증가세는 과일 수출의 감소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견과류 수출액은 1억 달러 증가한 2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일류는 플로리다 지역의 허리케인 여파로 인해서 1억 달러 감소한 39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선 과일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플로리다의 2004/05년 포도생산량은 전년 대비 63%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플로리다 오렌지의 생산이 감소했지만, 오렌지 주스의 충분한 재고량과 내수 침체로 인해서 주스 수출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예 농산물 가운데 포도주만이 내수 증가와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강력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멕시코, 캐나다,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유로화의 강세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EU로의 수출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표 2 품목별 농산물 수출액 전망

단위: 10억 달러

품목	2001	2002	2003	2004	2005년 전망	
					8월	11월
곡물 및 사료[1]	13.892	14.150	14.839	17.940	16.1	15.1
밀 및 밀가루	3.361	3.629	4.027	5.170	4.1	4.1
쌀	0.758	0.737	0.930	1.214	1.0	0.9
잡곡[2]	5.239	5.292	5.147	6.469	6.6	5.5
옥수수	4.514	4.599	4.534	5.841	5.9	5.0
사료곡물	2.747	2.529	2.588	2.684	2.4	2.6
유지종자 및 가공품	8.781	9.750	10.180	11.171	9.9	8.8
대두	5.089	5.474	6.514	7.463	6.6	5.7
대두박	1.387	1.295	1.126	1.079	1.0	0.9
대두유	0.240	0.454	0.558	0.288	0.3	0.3
축산물	8.786	8.657	9.062	7.048	6.8	6.9
쇠고기, 돼지고기, 부산물	4.833	4.749	5.174	3.408	3.0	3.1
가죽, 모피	1.933	1.777	1.785	1.767	1.8	1.8
가금육 및 가공품	2.519	2.280	2.104	2.513	2.5	2.6
닭고기[3]	1.711	1.546	1.370	1.686	1.7	1.7
낙농품	1.076	0.988	0.979	1.272	1.1	1.3
담배	1.181	1.148	1.001	1.050	1.0	1.1
면화	2.093	2.052	2.854	4.537	3.1	3.1
종자류	0.738	0.843	0.812	1.020	0.8	0.8
원예 농산물	11.062	11.113	11.898	13.261	13.8	13.8
과일류 및 조제품	3.512	3.449	3.554	3.820	4.0	3.9
채소류 및 조제품	3.041	3.011	3.017	3.141	3.3	3.3
견과류 및 조제품	1.133	1.233	1.490	1.888	1.9	2.0
설탕 및 열대성작물	2.569	2.309	2.452	2.486	2.5	2.5
주요 벌크 품목[4]	17.608	18.201	20.355	25.825	22.3	20.3
합계	52.698	53.291	56.183	62.299	57.5	56.0

주: 1) 두류, 가공 곡물 포함.
2) 옥수수, 보리, 사탕수수, 귀리, 호밀 포함.
3) 연방 검역대상 품목만 포함.
4) 밀, 쌀, 잡곡, 대두, 면화, 담배 포함.
자료: USDA. ERS.

표 3 품목별 농산물 수출량 전망

단위: 백만 톤

품목	2001	2002	2003	2004	2005년 전망	
					8월	11월
밀	25.275	25.411	24.296	31.148	25.0	25.8
밀가루	0.533	0.553	0.448	0.276	0.5	0.3
쌀	3.066	3.543	4.478	3.722	3.7	3.6
잡곡[1]	55.164	53.625	46.055	52.634	59.1	57.5
옥수수	48.192	47.058	40.780	47.579	53.0	52.0
사료곡물	12.647	12.629	11.814	11.751	11.7	12.1
유지종자류 및 가공품	37.068	40.229	37.825	32.399	36.1	35.8
대두	26.569	28.925	28.509	24.447	28.0	27.5
대두박	6.988	6.811	5.461	3.941	4.7	4.9
대두유	0.635	1.143	1.027	0.424	0.5	0.5
쇠고기, 돼지고기, 부산물	1.917	1.950	1.991	1.414	1.3	1.3
닭고기[2]	2.482	2.263	2.158	2.115	2.1	2.2
동물성기름	1.049	1.272	1.329	1.188	1.2	1.2
담배	0.177	0.163	0.150	0.163	0.2	0.2
면화	1.686	2.206	2.514	3.022	2.7	2.8
원예농산물	8.112	7.939	7.981	8.039	8.2	8.1
설탕 및 열대성작물	1.358	1.228	1.268	1.264	1.3	1.3
주요 벌크 품목[3]	111.937	113.872	106.002	115.135	118.7	117.4

주 : (1) 옥수수, 보리, 사탕수수, 귀리, 호밀 포함.
(2) 연방 검역대상 품목만 포함.
(3) 밀, 쌀, 잡곡, 대두, 면화, 담배 포함.
자료: USDA. ERS.

4. 지역별·국가별 농산물 수출전망

2005년 미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은 서반구 지역의 국가들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반구의 수출규모는 아시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단일 국가로써 미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인 캐나다로의 2005년 수출액은 유일하게 전년 대비 증가한 9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포도주와 과일류, 채소류와 같은 부가가치 품목의 수출단가 상승에 비해 벌크품목의 수출단가 하락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대 수출시장인 멕시코로의 수출액은 80억 달러에 달하고, 3대 수출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다소 감소한 7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 멕시코 수출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곡물, 유지종자, 면화의 수출액은 수출단가 하락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미로의 2005년 농산물 총수출액은 전년 대비 수출량 증가에 비해 수출단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4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5년 밀 수출량은 경기회복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5년 아시아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옥수수, 대두, 면화의 수출량 감소와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대두와 면화의 수출량과 수출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대 중국 수출 감소가 두드러질 전망인데, 2005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5대 미국의 농산물 수출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 일본 농산물 수출은 옥수수와 대두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옥수수와 대두 가격의 하락 영향으로 홍콩, 한국, 대만으로의 수출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

인도네시아 수출은 대두와 면화의 가격 하락에 힘입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일본과 한국에서의 쇠고기 금수조치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유럽·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은 2004~05년 약 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곡물과 유지종자 공급량은 수입 수요를 감소시킬 정도로 충분하지만, 견과류와 포도주 등 소비자 식품 판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 EU 수출은 약 5%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EU는 여전히 미국의 4대 농산물 수출시장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동,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 농산물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흑해지역의 수출경쟁 심화로 인해 이들 지역에 대한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할 것이다.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4억 달러 감소한 23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에 대한 밀과 옥수수 수출은 2004년에 비해 2005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4 지역별·국가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10억 달러, %

	2001	2002	2003	2004	비중	2005년 11월 전망
아시아	20.081	19.461	21.661	24.345	39.1	20.5
동아시아	16.603	15.830	18.075	20.566	33.0	17.3
일본	8.942	8.307	8.811	8.531	13.7	7.7
중국	1.875	1.770	3.484	6.096	9.8	4.6
홍콩	1.252	1.145	1.060	0.991	1.6	0.9
대만	1.986	1.921	1.946	2.141	3.4	1.8
한국	2.541	2.668	2.761	2.778	4.5	2.3
동남아시아	2.907	2.880	2.943	3.117	5.0	2.6
인도네시아	0.877	0.784	0.918	0.978	1.6	0.8
필리핀	0.836	0.763	0.653	0.684	1.1	0.6
말레이시아	0.362	0.365	0.379	0.376	0.6	0.3
태국	0.532	0.624	0.627	0.677	1.1	0.6

(표 4 계속)

표 4 지역별·국가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10억 달러, %

	2001	2002	2003	2004	비중	2005년 11월 전망
남아시아	0.570	0.751	0.643	0.663	1.1	0.6
서반구	19.554	20.098	21.517	23.180	37.2	22.3
북미	15.271	15.648	16.743	17.943	28.8	17.7
캐나다	7.994	8.588	9.133	9.540	15.3	9.7
멕시코	7.277	7.058	7.610	8.403	13.5	8.0
캐리비언	1.398	1.489	1.525	1.842	3.0	1.7
중미	1.191	1.219	1.346	1.397	2.2	1.3
남미	1.695	1.743	1.902	1.997	3.2	1.6
브라질	0.219	0.318	0.361	0.325	0.5	0.2
콜롬비아	0.442	0.485	0.523	0.599	1.0	0.5
베네수엘라	0.416	0.329	0.388	0.390	0.6	0.3
유럽/유라시아	8.011	8.174	7.396	8.246	13.2	7.7
EU-25[1]	6.466	6.461	6.310	6.816	10.9	6.5
기타 유럽[2]	0.591	0.862	0.426	0.430	0.7	0.3
FSU-12[3]	0.955	0.851	0.660	1.001	1.6	0.9
러시아	0.823	0.711	0.501	0.736	1.2	0.7
중동	2.169	2.436	2.387	2.747	4.4	2.3
터키	0.564	0.725	0.877	0.919	1.5	0.7
사우디아라비아	0.470	0.354	0.320	0.353	0.6	0.3
아프리카	2.126	2.406	2.256	2.991	4.8	2.5
북아프리카	1.464	1.560	1.204	1.636	2.6	1.3
이집트	1.004	1.020	0.832	0.979	1.6	0.8
사하라이남아프리카	0.662	0.845	1.052	1.355	2.2	1.2
오세아니아	0.472	0.501	0.785	0.568	0.9	0.5
기타	0.285	0.215	0.181	0.222	0.4	0.2
합계	52.698	53.291	56.183	62.299	100.0	56.0

주 : (1) 기존 EU-15와 10개 신생 가맹국 포함
(2)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포함
(3) 발트 공화국을 제외한 15개 소련연방 공화국
자료 : USDA. ERS.

5. 품목별 농산물 수입현황

2005년 미국 농산물 수입액은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와 함께 달러화의 약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33억 달러 증가한 56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년대비 수입액은 증가한 반면, 수입량은 거의 변화가 없다.

미국의 수입 식품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인구 증가 추세를 따르고 있다. 수입 증가는 주로 소득 증가, 가공품의 가격 증가, 달러의 평가절하에 영향을 받고 있다.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 확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등은 달러화 약세의 요인이다. 달러의 구매력 감소로 인해서 고가의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겠지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의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입단가는 달러화의 약세뿐만 아니라 운송비용의 인상으로 인해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2005년 쇠고기 수입은 전년 대비 3억 달러 증가한 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4년 쇠고기 수입은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전년 대비 수입량은 23%, 수입액은 47%의 신장세를 보였다. 2004년 캐나다에 대한 신선 혹은 냉장 쇠고기 수입은 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2004년 호주, 뉴질랜드에서 주로 수출된 냉동 쇠고기 수입은 전년 대비 5억 달러 증가한 17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수입 증가세는 캐나다에 대한 쇠고기 금수조치와 국내 도축율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2005년 멕시코에 대한 생우 수입은 미국 내 비육용 생우(feeder cattle)의 가격 호조로 인해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5년 돼지고기 수입액은 전년대비 1억 달러 증가한 1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5년 적색육과 가공품의 수입액은 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이고, 수입액의 50%는 호주와 뉴질랜드 산 양고기가 차

지하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양고기 소비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하고 있다. 2005년 육류, 낙농품, 축산물의 총 수입은 전년 대비 7억 달러 증가한 11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예 농산물과 가공품을 수입액은 2005년에 19억 달러 증가한 24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채소류의 수입은 전년 대비 6억 달러, 포도주와 맥주의 수입은전년 대비 3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5년 과일과 주스의 수입은 3억 달러견과류는 1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 총수입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화류, 향유, 포도주, 맥주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약 6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 커피, 코코아, 고무류 등 열대성 작물의 수입은 커피와 고무류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4년 코코아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2005년 코코아 수입량은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코아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서 캔디와 과자류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2004년에 수입액과 수입량은 각각 10%, 12% 증가했다. 설탕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2005년 설탕과 조제품의 수입액은 대략 1억 달러 미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차와 양념류와 같은 열대성 작물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리부유, 해바라기유, 코코아유 가격이 2004년에 상승했지만, 미국의 대두와 기타 유지종자류의 생산증가로 인해서 식물성 기름의 2005년 수입량과 수입액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두유 가격의 하락세는 기타 식물성 기름의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 내 곡물 생산증가로 인해서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자류, 웨이퍼, 파스타, 국수 등 곡물가공품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밀생산량 증가, 밀가격 상승과 더불어 달러화의 약세에 힘입어 곡물가공품의 수입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5 품목별 농산물 수입액 현황

단위: 10억 달러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년 전망	
						8월	11월
축산물 및 가공품	8.150	9.030	9.066	8.594	10.353	9.5	11.1
생축(가금육 제외)	1.735	2.198	1.995	1.673	1.320	1.2	1.4
적색육 및 가공품	3.723	4.091	4.187	4.020	5.527	5.1	6.1
쇠고기	2.405	2.645	2.749	2.392	3.506	3.1	3.8
돼지고기	0.958	1.039	0.992	1.150	1.330	1.3	1.4
낙농품	1.653	1.728	1.841	1.866	2.332	2.1	2.5
곡물 및 사료	3.038	3.189	3.599	3.892	4.199	4.3	4.3
곡물	0.634	0.687	0.754	0.649	0.658	0.6	0.6
곡물가공품	1.927	2.014	2.342	2.706	2.994	3.2	3.2
원예농산물[1]	15.820	16.427	17.545	20.203	22.918	25.0	24.8
바나나	1.128	1.156	1.188	1.164	1.122	1.1	1.2
과일류(신선/냉동)	1.953	2.132	2.300	2.523	2.881	3.1	3.1
과일, 조제품 및 주스	1.456	1.316	1.443	1.692	1.804	2.0	1.9
견과류 및 조제품	0.791	0.656	0.648	0.724	0.952	1.0	1.1
채소류(신선/냉동)	2.701	3.100	3.120	3.701	4.087	4.5	4.4
채소조제품	1.959	2.083	2.324	2.500	2.759	3.0	3.0
포도주	2.218	2.225	2.522	3.186	3.319	3.6	3.5
맥주	2.126	2.296	2.526	2.591	2.805	3.0	3.0
절화류	1.165	1.156	1.135	1.216	1.362	1.6	1.6
향유	0.322	0.308	0.339	0.906	1.825	2.1	2.1
담배	0.651	0.648	0.736	0.670	0.761	0.9	0.9
유지종자 및 가공품	1.860	1.680	1.675	2.009	2.933	2.5	2.5
식물성기름	1.410	1.261	1.310	1.595	2.253	1.7	1.7
설탕 및 가공품	1.515	1.618	1.710	2.111	2.124	2.2	2.2
커피 및 가공품	2.906	1.761	1.610	1.949	2.163	2.3	2.3
코코아 및 가공품	1.465	1.391	1.714	2.273	2.586	3.2	2.8
고무류	0.841	0.668	0.655	1.032	1.331	1.6	1.6
홍차류 및 양념류	1.361	1.334	1.306	1.457	1.551	1.8	1.7
종자류 및 기타음료	1.250	1.281	1.340	1.494	1.777	1.9	1.9
합계	38.857	39.027	40.954	45.686	52.701	55.0	56.0

자료: USDA. ERS.

표 6 품목별 농산물 수입량 현황

단위: 백만 톤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년 전망	
						8월 전망	11월 전망
포도주	4.507	4.774	5.447	6.187	6.339	6.3	6.4
맥주	22.905	24.904	26.711	26.996	28.379	30.0	29.0
생우	2.120	2.482	2.337	2.027	1.477	1.3	1.6
적색육	1.487	1.521	1.579	1.526	1.734	1.7	1.8
치즈류	0.314	0.301	0.324	0.320	0.337	0.3	0.4
곡물	4.509	4.914	4.918	3.832	3.608	3.4	3.4
사료곡물	1.238	1.210	1.212	1.262	1.087	1.0	1.0
과일류(신선/냉동)	2.979	3.029	3.301	3.596	3.680	3.6	3.8
바나나	4.396	4.093	4.192	4.219	4.130	4.1	4.2
채소류(신선/냉동)	3.755	4.023	4.320	4.732	4.888	4.9	5.0
식물성기름	1.767	1.945	1.927	1.841	2.254	1.8	1.9
설탕 및 가공품	2.208	2.182	2.059	2.309	2.460	2.8	2.5
커피 및 가공품	1.411	1.214	1.194	1.332	1.305	1.3	1.3
코코아 및 가공품	1.045	0.898	0.986	0.977	1.209	1.4	1.3

주 : 생우는 백만 두수 기준임.
자료 : USDA. ERS.

6. 지역별·국가별 농산물 수입 현황

2005년 EU에 대한 미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124억 달러로 캐나다와 NAFTA 가맹국에 대한 수입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총 수입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수입비중은 아시아가 14%, 오세아니아가 8%, 멕시코를 제외한 남미가 17%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지역별·국가별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10억 달러, %

지역별·국가별	2000	2001	2002	2003	2004	비중	2005년 11월
서반구	20.890	21.479	22.292	23.976	26.855	51.0	28.4
캐나다	8.520	9.521	10.190	10.252	11.277	21.4	11.7
멕시코	4.989	5.311	5.288	5.995	7.023	13.3	7.5
남미	4.938	4.376	4.527	5.247	5.940	11.3	6.4
브라질	1.250	0.985	1.081	1.465	1.637	3.1	1.7
콜롬비아	1.163	0.962	0.905	1.031	1.133	2.1	1.3
칠레	0.974	1.023	1.124	1.200	1.317	2.5	1.4
기타	1.552	1.406	1.417	1.551	1.854	3.5	2.0
중미	2.124	1.931	1.930	2.106	2.251	4.3	2.5
코스타리카	0.798	0.817	0.814	0.845	0.903	1.7	1.0
캐리비언	0.319	0.341	0.357	0.377	0.364	0.7	0.4
유럽/유라시아	8.564	8.443	9.050	10.655	12.512	23.7	13.2
EU-25	8.056	7.912	8.458	9.996	11.794	22.4	12.4
기타유럽	0.425	0.450	0.509	0.580	0.635	1.2	0.7
FSU-12	0.083	0.081	0.084	0.080	0.083	0.2	0.1
아시아	5.379	4.789	5.042	5.998	7.359	14.0	8.1
중국	0.811	0.787	0.974	1.184	1.579	3.0	1.9
기타 동아시아	0.760	0.742	0.782	0.767	0.903	1.7	1.0
동남아시아	2.876	2.515	2.550	3.282	3.993	7.6	4.2
인도네시아	1.001	0.858	0.910	1.158	1.445	2.7	1.6
태국	0.756	0.726	0.708	0.889	1.027	1.9	1.1
남아시아	0.933	0.745	0.736	0.765	0.885	1.7	1.0
인도	0.866	0.688	0.670	0.692	0.810	1.5	0.9
오세아니아	2.666	3.071	3.179	3.318	4.035	7.7	4.3
호주	1.517	1.798	1.894	1.976	2.387	4.5	2.6
뉴질랜드	1.105	1.228	1.226	1.287	1.573	3.0	1.7
아프리카	0.882	0.762	0.886	1.198	1.344	2.5	1.5
코트디부아르	0.291	0.163	0.241	0.440	0.497	0.9	0.6
중동	0.474	0.481	0.502	0.536	0.593	1.1	0.7
터키	0.310	0.294	0.321	0.313	0.352	0.7	0.5
합계	38.857	39.027	40.954	45.686	52.701	100.0	56.0

자료: USDA. ERS.

캐나다, 남미 등 서반구 지역에 대한 2005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1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미, 남미에 대한 원예 농산물과 열대성 작물의 수입은 미국 농산물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에 대한 수입액은 약 18억 달러 증가할 전망인데, 이 가운데 유럽·유라시아 6억 달러, 아시아 7억 달러, 오세아니아 3억 달러, 아프리카와 중동 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나다에 대한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 여파로 생우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2004년에 4억 3,000만 달러 증가하는데 그쳤고, 돼지고기 수입은 1억 4,000만 달러 증가했다. 대부분의 육류들은 신선 및 냉동 제품이었다. 2004년 밀과 곡물류의 수입은 약 2억 달러, 신선 혹은 냉동 채소류는 약 1억 5,000만 달러, 식물성 기름은 약 1억 3,700만 달러 증가했다. 2004년 가공 채소류의 수입증가는 5억 1,500만 달러 에 달하는 냉동 감자의 수입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생우 수입증가로 인해 멕시코에 대한 수입은 2003년 3억 7,600만 달러에서 2004년 5억 8,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망고와 같은 과일 수입은 4억 달러 이상, 토마토와 같은 채소류의 수입은 2억 달러 이상, 쇠고기 수입은 1억 5,000만 달러 증가했다.

2004년 EU에 대한 수입은 주로 치즈, 향유, 올리브유, 포도주와 맥주 이외의 음료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수입은 2005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로화의 강세로 인해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 USDA ERS,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 2004. 11. 22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2004년 12월 농업협상 동향

DDA, 기본골격에 대한 G10의 입장

DDA, 2004년 12월 농업협상 동향

제28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지난 12월 13일부터 17일 사이에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12월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회의에서 1차적으로 논의되었던 주제들에 관해 심층 논의가 이루어졌고 내년 2월에 1차적으로 논의할 주제에 관해 각국이 자신의 입장으로 처음으로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모델리티 초안 제시에 관해 의장이 입장을 표명하는 등 향후 협상 진행이 가속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1. 쟁점별 논의 사항

1.1 개도국 특별수입제한조치(SSM)

합의된 기본골격에 따르면 선진국이 SSG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개도국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SSM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도국의 SSM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발동기준과 관련하여 그룹간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기존의 SSG가 물량기준과 가격기준의 두 가지 발동기준 중 하나만 적용하더라도 발동할 수 있게 한데 반해 SSM의 발동기준으로서 물량기준만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발동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개도국 그룹이 이에 반발하며 간단한 방식을 통해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 시장접근 분야

우리나라의 관심사항인 시장접근 분야 전반에 대해서 미국, G20, 케언즈 그룹 등은 조화방식에 따른 실질적인 시장 접근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선형방식에 의한 급격한 관세감축, 관세상한 도입 및 관세구조 단순화 등을 주장하였으나 수입국 그룹인 G10과 EU는 UR 방식을 이용하여 관세감축을 점진적으로 할 것과 민감품목 및 NTC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수출입국간 입장차가 커 합의도출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세감축공식은 비종가세의 종가세 전환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종가세 전환 시기를 관세감축공식 확정 이전으로 할 것인지 관세감축공식 등 시장접근 분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 진 후에 종가세로 전환할 것인지 논란이 되어 비종가세의 종가세 전환 시기와 관세감축공식 확정 시기를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종가세의 전환과 관련하여 실제 이용할 자료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문제들에 관해 논의가 계속되었고 의장은 이와 같은 논의를 반영하여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1.3. 블루박스

지난 8월 1일 기본골격이 합의될 당시 쟁점으로 부상한 블루박스의 지급요건에 관해 1차 논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블루박스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농업개혁 과정에서의 블루박스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며 엄격한 기준설정에 반대하였으며 이에 대해 EU와 G10이 동조하였다. 그러나 케언즈 그룹은 블루박스의 지원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정하도록 주장하였으며 G20은 AMS에 상한을 정하는 것과 같이 블루박스에도 상한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여 그룹간 견해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12월 특별회의 평가

이번 특별회의에서는 민감한 사안인 관세감축공식과 블루박스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나 그룹간 의견차가 매우 커 향후 논의 진전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협상을 진전시키기 보다는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중점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C는 G10 및 G33 등의 협상 그룹을 초청하여 신임 농업담당 집행위원이 직접 EC의 입장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G20과 G10도 각각 타그룹간의 의견 조율에 나서는 등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논의 의제에 관해서는 협상 그룹별로 기존의 입장을 제시하는데 그쳐 협상이 심도있게 이루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본골격이 합의된 이후 세 차례의 농업협상이 이루어졌으나 의제별로 구체적인 입장이 제시되지 않고 기존의 입장차만 확인하게 되어 향후 협상 일정이 주목된다. 다음 29차 농업협상은 내년 2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개최되며 이전에 논의되었던 의제 중 일부와 국내보조감축공식 및 수출제한, 특혜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협상 일정과 관련하여 그로서 의장은 7월 회의에서 모델리티 1차 초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협상을 빠른 속도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임소영 lsyjr@krei.re.kr 02-3299-42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DA, 기본골격에 대한 G10의 입장

DDA 협상에서 G10은 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식량 순수입국으로 구성되어,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거나, 상한관세 설정과 관세할당의 일률적·의무적 확대에 대한 반대, 또는 유연성 있는 관세감축방식 등을 요구하는 10개국으로 이루어진 그룹을 말한다.

지난 8월 1일 기본골격 합의문에 대해 각국이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 9월 하순 일본 농림수산성 초청에 따라 일본을 방문한 스위스의 워세셔 국제경제담당대사의 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과 노르웨이 농업단체의 기본골격 합의에 대한 평가와 함께 G10 회원국인 스위스, 한국, 노르웨이 등의 입장을 소개한다.

1. 농업협상을 둘러싼 환경

스위스 경제부의 국제경제담당 워세셔 대사는 기본골격 합의가 이루어진 후인 9월 도쿄에서 연 강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WTO에는 148개 회원국이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 100개국은 개발도상국이고, 이들 대부분은 무역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발에 더 중점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 무역의 약 90%를 차지하지만 수적으로는 소수인 회원국이 무역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편중을 조정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이익을 줄 수 있

는 거래를 성립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그 근거가 되는 사례로서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개최를 앞두고 아프리카의 4개의 작은 나라들이 면화의 무역왜곡성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도 칸쿤 각료회의가 실패했던 이유의 하나가 아닌가"라며 면화문제의 예를 들었다. 실제로 금년 9월 면화문제로 미국이 WTO 패널에서 브라질에게 패소한 것은 향후 DDA 협상에서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또한 워세셔 대사는 "세계무역의 중심축은 60년대, 70년대에 걸쳐 대서양간 무역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되었고, 최근에는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의 국가들의 등장으로 이러한 이전이 가속되고 있다. 상품 무역에서는 2005년에는 '남쪽' 국가들간의 거래가 전세계의 50%를 차지하는 상황 하에서, 기존에 자유무역체제에 완전하게는 편입되지 않았던 농업분야에 협상의 역점이 놓인 가운데 어떻게 이해관계의 균형을 취하느냐가 이번 협상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2. 기본골격에 대한 주요 평가

워세셔 대사는 "G10 국가들은 인구로는 전세계의 4%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농산물 수입에서는 1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권내의 G10 국가들은 미국, 그리고 유럽권내에서는 EU라는 각각 하나의 초강력 공급자에게 식량수입을 의존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G10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개발 라운드라는 이름 하에 수입국으로서 시장개방을 요구받고 있다"고, G10을 둘러싼 상황을 정리한 후, "스위스, 일본 등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는 시장접근에 관한 협상이다. 모든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고,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정책을 실질적으로 감축한다면 이미 그 자체로 추가적 시장접근의 기회가 창출된다. 따라서 시장접근에 관한 수치 설정에는 이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G10 국가의 농업단체는 기본골격합의의 시장접근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노르웨이 농업인연맹은 “민감품목 취급에 대해 문서로 기록한 것은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얼마 만큼의 유연성이 부여될 것인가 하는 점과 민감품목의 수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가 하는 점은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앞으로도 협상의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 농협중앙회도 “민감품목에 대한 유연한 취급과 개도국에 대한 특별품목(SP)과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M) 등의 특별하고 차등적인 우대는 성과”이며, 특히 “민감품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은 한국농업에 미칠 악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하는 한편, 의무수입물량(TRQ) 확대와 민감품목에 대한 유연성에 관해 향후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질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비교적 고관세 품목이 많아, 보다 관세가 높을수록 큰 폭으로 감축하는 구간방식이 채택된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으로 국내보조에 관해 워세서 대사는 “스위스에는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Blue Box) 정책이나 최소허용보조(de-minimis)는 없다. 향후 감축대상보조(Amber Box) 정책의 삭감이 너무 커질 경우의 대항조치로서, Blue Box 정책, 최소허용보조 정책을 도입할 권리 확립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농업인연맹도 “보다 큰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제도를 보유한 나라일수록 더 많이 감축한다는 구간방식은 노르웨이와 같이 생산조건이 열악한 나라에게는 가혹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Blue Box 정책에 대해 일정한 유연성을 인정받은 것은 성과”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 농협중앙회도 “AMS의 품목별 상한설정은 영향이 크다”면서 “향후 농정개혁은 새로운 Blue Box 정책을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G20은 Blue Box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지만, 한국에게는 Blue Box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Blue Box 정

책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한편 워세셔 대사는 비교역적 관심사항과 관련하여 “WTO에서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확보하는 도구로는 우선 관세와 국경보호가 있다. 그러나 비교역적 관심사항은 개념상 점진적인 자유화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영속되는 것이다. 관세를 인하해야 하게 된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고, 동물애호정책인 허용보조(Green Box) 정책으로의 인식과 레이블링, 지리적 표시(GI)를 비교역적 관심사항과 관련지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3. G10의 향후 협상과제

워세셔 대사는 “홍콩 각료회의는 모든 각료에게 시련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는 협상 담당자에게는 협상의 기술적 작업, 그리고 파트너와의 연계 구축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논점에서 우리는 EU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고, 또한 “시장개방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이미 G10 국가에게 수출하고 있는 거대 공급국이다. 여기에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경쟁력 있는 거대 수출국이 가세할 뿐이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소규모 공급국이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다.

G90 그 중에서도 더 작은 개도국들에게 농업시장의 순수한 개방이 가져다 주는 혜택은 크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하고, “특별품목(SP)과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M)를 주장하고 있는 개도국 G33, 기존의 특혜우대 상실에 반대하고 있는 G90은 향후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케언즈 그룹의 사실상의 소멸로 고립상태인 캐나다와 같은 나라도 있다”며, G10 회원국 이외의 그룹과 각국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 농업인연맹의 칼리 부회장은 “부유한 나라이냐 가난한 나라이냐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가 자국에서 식량생산을 할 권리에 대해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고, 서로 협력해 싸워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힌 후에 “다국적 유통체인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식량이 소비자에게 다다르는 전단계에서 부가가치가 가능한 한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고, 이 점을 감시해야 한다”, “생산자인 농민의 몫이 너무 적다는 과제는 세계 어느 나라나 같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협상을 위해 “식량수입개도국으로 구성되는 G33 나라들과 G10이 서로 협력할 것, 즉 양측이 동맹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연계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G10 회원국 내에서 의견조정과 결속강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방향이다. 그보다 국제협상이 이전처럼 극소수의 강대국이 주도하는 시대로부터 변천하고 있는 지금, G10과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 그룹 가운데에도 향후 연계가능한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 국가들과 어떻게 의견조정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향후 협상의 관건이 될 것 같다.

http://www.zenchu-ja.org/wto.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4. 12)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4. 12)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12월 10일 발표한 세계곡물 수급전망(12월 1일 현재)에 의하면, 2004/05년도 세계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20억 524만톤, 소비량은 2.1% 증가한 19억 8,445만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6.0% 증가한 3억 6.783만톤, 기말재고율은 0.6% 포인트 증가한 18.5%로 전망하고 있다.

1. 전체 곡물

2004/05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20억 524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1억 5,838만 톤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주요 곡물인 쌀과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4/05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4,704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5,228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05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2.1% 증가한 19억 8,44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9/00년도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으나 2000/01년도부터 2001/02년도까지는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그 차이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4/05년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2억 3,28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 생산량이 소비량을 2,079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4/05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6.0% 증가한 3억 6,783만 톤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3/04년도 17.9%에서 18.5%로 0.6%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11	2004.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16.79	1,846.86	1,999.89	2,005.24	8.6	0.3
공 급 량	2,352.90	2,290.23	2,345.80	2,352.28	2.7	0.3
소 비 량	1,909.53	1,943.19	1,981.86	1,984.45	2.1	0.1
교 역 량	241.19	236.63	233.55	232.86	△1.6	△0.3
기말재고량	443.37	347.04	363.94	367.83	6.0	1.1
기말재고율	23.2	17.9	18.4	18.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7, December 10, 2004.

2. 쌀

2004/05년도 쌀 생산량은 2003/04년 보다 2.3% 증가한 3억 9,810만톤 수준이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4/05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4억 1,192만 톤으로 전

년보다 약 180만 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05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 대비 6.3% 감소한 2,437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주요 쌀 수출국인 태국과 베트남의 수출량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1%로 전망된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16.1%가 감소한 7,176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05년도 기말재고율은 17.4%로 2003/04년도의 20.7%보다 약 3.3%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11	2004.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377.81	389.11	398.25	398.10	2.3	0.0
공 급 량	517.24	499.29	483.81	483.68	△3.1	0.0
소 비 량	407.05	413.72	412.37	411.92	△0.4	△0.11
교 역 량	28.62	26.01	24.26	24.37	△6.3	0.5
기말재고량	110.18	85.58	71.44	71.76	△16.1	0.4
기말재고율	27.1	20.7	17.3	17.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7, December 10, 2004.

3. 소맥

2004/05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6억 1,826만 톤으로 전년보다 1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유럽 등의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4/05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3/04년 5억 8,798만 톤보다 약 1,844만 톤 증가한 6억 642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2001/02년 1억 812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04/05년에는 1억 734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도 17.4%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4/05년 기말재고량은 1억 4,283만 톤으로 전년보다 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재고량이 1.1%와 97.6%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의 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전년의 22.28%에서 23.55%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11	2004.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66.92	551.39	616.94	618.26	12.1	0.2
공 급 량	768.98	718.97	747.99	749.25	4.2	0.2
소 비 량	601.41	587.98	605.79	606.42	3.1	0.1
교 역 량	108.50	110.54	107.06	107.34	△2.9	0.3
기말재고량	167.58	130.99	142.20	142.83	9.0	0.4
기말재고율	27.86	22.28	23.47	23.5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7, December 10, 2004.

4. 옥수수

2004/05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9,581만 톤으로 전년보다 1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아르헨티나, 유럽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

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4/05년의 소비량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6억 8,12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이후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였으나 2004/05년은 생산량이 소비량을 1,452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05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7,737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5.7%, 14.2%로 이들 두 국가가 약 79.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05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4.9% 증가한 1억 1,17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1,452만 톤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 옥수수 생산국의 기말재고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2004/05년도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1.4% 포인트 증가한 16.4%가 될 전망이다.

표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11	2004.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01.14	620.70	691.28	695.81	12.1	0.7
공 급 량	749.19	743.16	787.06	793.00	6.7	0.8
소 비 량	626.73	645.97	678.35	681.29	5.5	0.4
교 역 량	78.23	74.15	78.04	77.37	4.3	△0.9
기말재고량	122.46	97.19	108.71	111.71	14.9	2.8
기말재고율	19.5	15.0	16.0	16.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7, December 10, 2004.

5. 대두 및 대두박

2004/05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3,102만 톤으로 전년보다 2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9.2% 늘어난 2억 83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2,27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12.4% 증가한 6,27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27.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43.8%, 브라질이 35.5%, 아르헨티나가 12.2%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9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6,057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3,829만 톤과 비교하여 58.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약 9.0% 포인트 높은 29.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11	2004.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97.08	189.81	230.14	231.02	21.7	0.4
공 급 량	230.30	230.48	269.25	269.31	16.8	0.0
소 비 량	190.59	190.83	207.35	208.32	9.2	0.5
교 역 량	61.69	55.78	62.65	62.71	12.4	0.1
기말재고량	40.67	38.29	61.40	60.57	58.2	△1.4
기말재고율	21.3	20.1	29.6	29.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7, December 10, 2004.

2004/05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4,142만 톤으로 전년보다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소비량은 전년보다 8.8% 늘어난 1억 4,054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88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보다 7.5% 증가한 4,80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4.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브라질이 35.4%, 아르헨티나가 42.3%의 비중을 차지, 이들 2국의 수출비중이 77.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의 기말 재고량은 478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435만 톤과 비교하여 9.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전년과 동일한 3.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11	2004.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30.01	129.62	140.85	141.42	9.1	0.4
공 급 량	134.16	133.38	145.20	145.77	9.3	0.4
소 비 량	131.38	129.13	139.84	140.54	8.8	0.5
교 역 량	42.25	44.70	48.36	48.07	7.5	△0.6
기말재고량	3.76	4.35	4.87	4.78	9.9	△1.8
기말재고율	2.9	3.4	3.5	3.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7, December 10, 2004.

표 7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11	2004.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517.24	499.29	483.81	483.68	△3.1	0.0
기초재고량	139.43	110.18	85.56	85.58	△22.3	0.0
생산량	377.81	389.11	398.25	398.10	2.3	0.0
미국	6.54	6.40	7.23	7.23	13.0	0.0
태국	17.20	18.01	17.60	17.40	△3.4	△1.1
베트남	21.53	21.97	21.50	21.50	△2.1	0.0
인도네시아	33.41	35.02	34.99	34.99	△0.1	0.0
중국	122.18	112.46	126.00	126.00	12.0	0.0
일본	8.09	7.09	7.95	7.95	12.1	0.0
수입량	26.18	24.38	24.06	24.24	△0.6	0.7
인도네시아	2.75	0.70	1.00	1.00	42.9	0.0
중국	0.26	1.10	0.60	0.60	△45.5	0.0
일본	0.63	0.70	0.70	0.70	0.0	0.0
소비량	407.05	413.72	412.37	411.92	△0.4	△0.1
미국	3.53	3.63	3.79	3.79	4.4	0.0
태국	9.46	9.47	9.85	9.48	0.1	△3.8
베트남	17.80	18.20	18.60	18.60	2.2	0.0
인도네시아	36.50	36.00	35.85	35.85	△0.4	0.0
중국	134.80	135.40	135.70	135.70	0.2	0.0
일본	8.74	8.36	8.30	8.30	△0.7	0.0
수출량	28.62	26.01	24.26	24.37	△6.3	0.5
미국	3.86	3.33	3.33	3.33	0.0	0.0
태국	7.55	10.00	8.25	8.25	△17.5	0.0
베트남	3.80	4.20	3.75	3.90	△7.1	4.0
기말재고량	110.18	85.58	71.44	71.76	△16.1	0.4
미국	0.83	0.76	1.33	1.33	75.0	0.0
태국	3.30	1.84	1.21	1.51	△17.9	24.8
인도네시아	4.34	4.07	4.31	4.21	3.4	△2.3
중국	67.22	44.59	34.69	34.69	△22.2	0.0
일본	2.47	1.70	1.85	1.85	8.8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7, December 10, 2004.

표 8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11	2004.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68.98	718.97	747.99	749.25	4.2	0.2
기초재고량	202.06	167.58	131.05	130.99	△21.8	0.0
생산량	566.92	551.39	616.94	618.26	12.1	0.2
미국	43.70	63.81	58.74	58.74	△7.9	0.0
호주	10.13	24.92	22.50	21.50	△13.7	△4.4
캐나다	16.20	23.55	24.00	25.85	9.8	7.7
EU25	124.48	106.45	134.50	135.29	27.1	0.6
중국	90.29	86.49	90.00	90.00	4.1	0.0
러시아	50.55	34.10	44.50	44.50	30.5	0.0
수입량	108.02	103.34	103.16	103.76	0.4	0.6
EU25	13.92	5.91	5.00	5.00	△15.4	0.0
브라질	6.73	5.30	5.00	5.00	△5.7	0.0
북아프리카	18.71	15.95	15.90	15.90	△0.3	0.0
파키스탄	0.19	0.05	1.00	1.50	2900.0	50.0
인도	0.03	0.01	0.02	0.02	100.0	0.0
러시아	1.04	1.00	1.50	1.50	50.0	0.0
소비량	601.41	587.98	605.79	606.42	3.1	0.1
미국	30.64	32.72	33.39	33.12	1.2	△0.8
EU25	116.55	108.93	115.75	116.25	6.7	0.4
중국	105.20	104.50	102.00	102.00	△2.4	0.0
파키스탄	18.38	18.90	19.30	19.50	3.2	1.0
러시아	39.32	35.50	37.50	37.50	5.6	0.0
수출량	108.50	110.54	107.06	107.34	△2.9	0.3
미국	23.14	31.56	26.54	27.22	△13.8	2.6
캐나다	9.40	15.79	15.50	15.50	△1.8	0.0
EU25	19.94	10.93	16.00	15.50	41.8	△3.1
기말재고량	167.58	130.99	142.20	142.83	9.0	0.4
미국	13.37	14.88	15.46	15.05	1.1	△2.7
EU25	16.83	9.33	17.08	17.88	91.6	4.7
중국	60.38	43.29	38.29	38.29	△11.6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7, December 10, 2004.

표 9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11	2004.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49.19	743.16	787.06	793.00	6.7	0.8
기초재고량	148.05	122.46	95.78	97.19	△20.6	1.5
생산량	601.14	620.70	691.28	695.81	12.1	0.7
미국	227.77	256.90	298.23	298.23	16.1	0.0
아르헨티나	15.50	12.75	15.50	15.50	21.6	0.0
EU25	49.08	39.62	51.52	51.82	30.8	0.6
멕시코	19.28	21.80	20.30	21.00	△3.7	3.4
동남아시아	14.85	15.32	15.64	15.64	2.1	0.0
중국	121.30	115.83	126.00	126.00	8.8	0.0
수입량	76.84	76.56	74.82	73.87	△3.5	△1.3
EU25	4.33	5.60	2.50	2.50	△55.4	0.0
일본	16.86	16.78	16.80	16.80	0.1	0.0
멕시코	5.27	5.71	6.30	5.80	1.6	△7.9
동남아시아	4.15	3.51	3.36	3.36	△4.3	0.0
한국	8.79	8.78	8.50	8.50	△3.2	0.0
소비량	626.73	645.97	678.35	681.29	5.5	0.4
미국	200.75	212.36	224.67	225.31	6.1	0.3
EU25	49.24	46.50	52.05	52.05	11.9	0.0
일본	16.80	16.90	16.80	16.80	△0.6	0.0
멕시코	24.70	26.40	26.50	27.40	3.8	3.4
동남아시아	18.50	17.85	18.50	18.50	3.6	0.0
한국	8.75	8.57	8.57	8.57	0.0	0.0
중국	125.90	129.40	133.00	133.00	2.8	0.0
수출량	78.23	74.15	78.04	77.37	4.3	△0.9
미국	40.33	48.18	52.07	50.80	5.4	△2.4
아르헨티나	11.20	9.00	11.00	11.00	22.2	0.0
중국	15.24	7.55	4.00	4.00	△47.0	0.0
기말재고량	122.46	97.19	108.71	111.71	14.9	2.8
미국	27.60	24.33	46.19	46.83	92.5	1.4
아르헨티나	0.63	0.39	0.60	0.60	53.8	0.0
EU25	4.83	3.14	4.56	4.92	56.7	7.9
중국	64.97	43.85	33.05	33.05	△24.6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7, December 10, 2004.

표 10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11	2004.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30.30	230.48	269.25	269.31	16.8	0.0
기초재고량	33.22	40.67	39.11	38.29	△5.9	△2.1
생산량	197.08	189.81	230.14	231.02	21.7	0.4
미국	75.01	66.78	85.74	85.74	28.4	0.0
아르헨티나	35.50	34.00	39.00	39.00	14.7	0.0
브라질	52.00	52.60	64.50	64.50	22.6	0.0
중국	16.51	15.40	17.50	18.00	16.9	2.9
수입량	62.65	54.42	62.16	62.29	14.5	0.2
EU25	16.82	14.79	15.86	15.86	7.2	0.0
일본	5.09	4.69	5.00	5.00	6.6	0.0
중국	21.42	16.93	22.00	22.00	29.9	0.0
소비량	190.59	190.83	207.35	208.32	9.2	0.5
미국	47.52	44.63	48.95	48.95	9.7	0.0
아르헨티나	24.86	26.62	27.77	27.77	4.3	0.0
브라질	29.76	32.25	36.32	36.32	12.6	0.0
EU25	17.84	15.66	16.56	16.52	5.5	△0.2
일본	5.32	4.97	5.26	5.26	5.8	0.0
중국	35.29	34.38	37.70	38.15	11.0	1.2
수출량	61.69	55.78	62.65	62.71	12.4	0.1
미국	28.42	24.09	27.49	27.49	14.1	0.0
아르헨티나	8.71	6.67	7.67	7.67	15.0	0.0
브라질	19.73	20.42	22.27	22.27	9.1	0.0
기말재고량	40.67	38.29	61.40	60.57	58.2	△1.4
미국	4.85	3.06	12.53	12.53	309.5	0.0
아르헨티나	12.47	13.70	17.63	17.77	29.7	0.8
브라질	15.93	16.19	23.43	22.46	38.7	△4.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7, December 10, 2004.

표 11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11	2004.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34.16	133.38	145.20	145.77	9.3	0.4
기초재고량	4.15	3.76	4.35	4.35	15.7	0.0
생산량	130.01	129.62	140.85	141.42	9.1	0.4
미국	34.67	32.95	35.54	35.54	7.9	0.0
아르헨티나	18.59	19.76	20.75	20.75	5.0	0.0
브라질	21.35	22.78	2.88	2.88	△87.4	0.0
EU25	12.88	11.35	11.93	11.93	5.1	0.0
중국	21.00	20.19	22.10	22.40	10.9	1.4
수입량	43.23	44.80	47.86	47.61	6.3	△0.5
미국	0.15	0.25	0.15	0.15	△40.0	0.0
브라질	0.32	0.28	0.15	0.15	△46.4	0.0
EU25	21.64	22.50	24.50	24.50	8.9	0.0
소비량	131.38	129.13	139.84	140.54	8.8	0.5
미국	29.37	29.27	30.75	30.75	5.1	0.0
브라질	8.02	7.32	8.95	8.95	22.3	0.0
인도	1.50	1.30	2.25	2.63	102.3	16.9
EU25	34.36	33.57	36.12	36.12	7.6	0.0
중국	20.21	19.56	21.31	21.63	10.6	1.5
수출량	42.25	44.70	48.36	48.07	7.5	△0.6
미국	5.46	3.94	4.90	4.90	24.4	0.0
아르헨티나	18.46	19.44	20.21	20.31	4.5	0.5
브라질	13.75	14.76	17.01	17.01	15.2	0.0
기말재고량	3.76	4.35	4.87	4.78	9.9	△1.8
미국	0.20	0.19	0.23	0.23	21.1	0.0
아르헨티나	0.20	0.25	0.40	0.40	60.0	0.0
브라질	0.64	1.62	1.70	1.70	4.9	0.0
EU25	0.87	0.85	0.86	0.86	1.2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7, December 10, 2004.

표 12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백만 톤, %

구 분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80/81	1,446.90	1,642.30	1,463.20	215.20	190.90	13.0
1981/82	1,496.10	1,687.00	1,462.80	209.70	229.00	15.7
1982/83	1,547.70	1,776.70	1,499.90	200.60	354.70	23.6
1983/84	1,485.30	1,840.00	1,537.80	207.80	302.40	19.7
1984/85	1,646.60	1,949.00	1,585.80	218.70	364.30	23.0
1985/86	1,664.10	2,028.40	1,596.00	180.60	433.30	27.1
1986/87	1,663.20	2,096.50	1,633.00	186.50	465.20	28.5
1987/88	1,594.70	2,059.90	1,652.10	211.60	410.60	24.9
1988/89	1,546.10	1,956.70	1,637.00	211.80	319.40	19.5
1989/90	1,670.80	1,990.20	1,688.60	220.10	296.60	17.6
1990/91	1,768.90	2,065.50	1,726.50	202.10	338.90	19.6
1991/92	1,708.00	2,046.90	1,722.00	221.10	325.00	18.9
1992/93	1,789.60	2,114.60	1,751.60	220.10	362.80	20.7
1993/94	1,712.40	2,075.20	1,753.30	204.40	473.10	27.0
1994/95	1,758.90	2,232.00	1,772.00	220.60	459.80	25.9
1995/96	1,712.20	2,172.00	1,761.60	206.70	410.60	23.3
1996/97	1,870.90	2,281.50	1,827.80	213.20	450.60	24.7
1997/98	1,880.80	2,331.40	1,835.90	217.50	495.30	27.0
1998/99	1,872.70	2,368.00	1,839.70	223.40	528.40	28.7
1999/00	1,871.60	2,400.00	1,869.70	240.10	530.40	28.4
2000/01	1,839.80	2,370.20	1,868.30	231.60	501.90	26.9
2001/02	1,870.11	2,414.04	1,899.90	238.82	514.15	27.1
2002/03	1,816.79	2,352.90	1,909.53	241.19	443.37	23.2
2003/04	1,846.86	2,290.23	1,943.19	236.63	347.04	17.9
2004/05	2,005.24	2,352.28	1,984.45	232.86	367.83	18.5

주 : 2003/04년은 추정치, 2004/05년은 전망치임.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1985～2003(1980/81～2001/02).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2002/03~2004/05).

(김혜영 hykim@krei.re.kr 02-3299-42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자료

지역별 옥수수 통계, 1960~2004년

표 1 세계 옥수수 통계, 1960~2004년

	식부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연말재고량 (천톤)	자급률 (%)	1인당소비량 (kg/1인)
1960	102,179	2.0	199,576	12,644	12,765	194,308	60,227	102.7	63.9
1961	102,839	2.0	207,786	18,260	17,330	208,772	56,223	99.5	67.8
1962	101,992	2.0	207,267	19,791	19,337	214,777	48,410	96.5	68.5
1963	107,361	2.0	217,054	22,344	22,607	212,953	52,943	101.9	66.4
1964	105,985	2.0	215,389	23,305	21,112	222,704	43,114	96.7	68.0
1965	104,471	2.2	225,485	27,331	25,455	232,205	33,680	97.1	69.4
1966	109,662	2.3	250,080	25,989	25,450	243,112	39,052	102.9	71.2
1967	110,345	2.4	262,164	28,552	28,081	252,841	47,073	103.7	72.5
1968	108,776	2.3	252,496	28,119	27,506	256,646	43,698	98.4	72.1
1969	109,941	2.5	270,038	29,191	28,031	269,671	41,072	100.1	74.2
1970	112,523	2.4	268,078	30,104	29,078	269,238	36,148	99.6	72.6
1971	116,226	2.7	308,500	34,481	32,154	292,693	49,022	105.4	77.3
1972	111,871	2.7	301,447	38,907	37,397	309,749	38,016	97.3	80.2
1973	118,151	2.8	330,523	45,884	44,302	326,954	38,720	101.1	83.0
1974	118,735	2.5	299,781	44,802	40,865	290,799	45,689	103.1	72.4
1975	121,969	2.8	339,215	52,542	51,432	329,488	52,495	103.0	80.6
1976	124,270	2.9	356,140	55,456	53,189	337,627	68,337	105.5	81.2
1977	125,772	2.9	365,441	63,643	56,426	353,844	77,307	103.3	83.6
1978	126,046	3.1	392,120	67,120	64,340	377,102	91,380	104.0	87.6
1979	127,255	3.3	425,566	73,201	71,716	408,831	111,155	104.1	93.4
1980	131,189	3.1	408,734	77,820	78,766	411,826	102,541	99.2	92.5
1981	133,040	3.3	441,753	66,930	67,591	421,225	127,163	104.9	93.0
1982	125,245	3.5	439,869	63,225	64,080	424,356	149,764	103.7	92.0
1983	119,698	2.9	348,272	61,075	61,006	406,641	88,982	85.6	86.7
1984	128,969	3.6	458,366	66,145	66,059	428,446	118,150	107.0	89.8
1985	130,999	3.7	479,020	53,805	53,481	417,666	177,672	114.7	86.1
1986	131,859	3.6	475,444	56,878	54,364	445,661	204,862	106.7	90.3
1987	127,158	3.6	450,989	58,797	57,009	456,526	197,495	98.8	91.0
1988	126,345	3.2	400,899	65,993	66,130	451,193	145,205	88.9	88.4
1989	127,495	3.6	461,957	74,537	72,968	475,830	132,759	97.1	91.7
1990	129,447	3.7	482,090	58,775	58,282	473,790	141,217	101.8	89.8
1991	132,704	3.7	493,215	63,037	61,888	494,629	140,857	99.7	92.3
1992	133,361	4.0	536,052	62,565	62,716	509,535	162,538	105.2	93.6
1993	130,965	3.6	476,069	57,348	56,787	507,809	129,006	93.7	91.9
1994	135,275	4.1	559,045	71,877	68,498	538,381	152,523	103.8	96.0
1995	134,840	3.8	515,858	64,743	66,139	531,680	132,069	97.0	93.5
1996	141,607	4.2	592,664	66,674	65,770	559,434	164,612	105.9	97.0
1997	136,222	4.2	574,119	63,040	62,899	573,581	165,047	100.1	98.1
1998	139,201	4.4	605,416	68,690	66,233	581,030	188,999	104.2	98.1
1999	138,958	4.4	606,871	73,439	72,528	599,447	191,268	101.2	99.9
2000	137,060	4.3	589,453	76,458	75,529	607,653	171,498	97.0	100.0
2001	137,646	4.4	598,825	74,544	73,480	620,438	148,026	96.5	100.8
2002	137,241	4.4	600,982	78,071	77,142	625,080	122,205	96.1	100.4
2003	140,051	4.4	618,064	78,180	76,760	649,181	93,960	95.2	103.0
2004	142,177	4.7	664,457	76,765	75,545	666,704	87,902	99.7	104.6

표 2 지역별 옥수수 통계, 아시아, 1960~2004년

	식부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연말재고량 (천톤)	자급률 (%)	1인당소비량 (kg/1인)
1960	25,146	1.0	25,047	731	2,096	28,428	3,049	88.1	16.5
1961	24,588	1.3	32,249	744	2,802	29,966	7,399	107.6	17.2
1962	24,679	1.3	33,174	963	3,371	35,705	7,250	92.9	20.2
1963	26,638	1.2	32,231	1,170	3,792	35,093	7,022	91.8	19.3
1964	27,920	1.3	35,879	1,313	3,662	39,029	6,215	91.9	20.9
1965	27,501	1.3	35,756	1,535	3,308	38,666	5,120	92.5	20.2
1966	29,796	1.4	41,362	1,567	4,478	43,219	6,220	95.7	22.1
1967	28,603	1.5	44,040	1,445	5,649	46,082	8,341	95.6	23.0
1968	29,147	1.4	41,518	1,541	6,131	46,204	8,293	89.9	22.5
1969	29,070	1.5	42,141	1,788	7,155	47,695	8,236	88.4	22.6
1970	29,680	1.7	49,886	2,070	6,728	51,981	10,668	96.0	24.1
1971	30,278	1.7	50,352	2,680	7,621	53,264	12,588	94.5	24.1
1972	29,840	1.6	46,395	1,525	10,637	55,222	12,768	84.0	24.4
1973	31,645	1.8	55,457	2,553	12,694	63,195	15,386	87.8	27.3
1974	32,047	1.9	59,252	2,412	10,190	62,687	19,695	94.5	26.5
1975	33,678	2.0	65,969	2,739	11,206	69,698	24,599	94.6	28.9
1976	33,948	1.9	65,568	2,108	13,027	75,353	25,560	87.0	30.6
1977	34,641	1.9	66,175	1,616	14,528	79,715	25,392	83.0	31.8
1978	35,598	2.1	75,277	2,152	20,667	83,681	35,672	90.0	32.8
1979	35,289	2.2	78,774	2,416	20,281	88,079	44,046	89.4	33.8
1980	36,138	2.3	83,282	2,411	21,492	100,657	45,986	82.7	38.0
1981	35,812	2.3	81,676	3,547	21,922	101,984	43,745	80.1	37.8
1982	33,771	2.4	80,416	2,469	26,600	102,915	45,718	78.1	37.4
1983	35,250	2.6	92,175	4,146	23,057	105,412	52,083	87.4	37.6
1984	35,305	2.8	98,794	8,570	22,414	105,920	58,731	93.3	37.1
1985	34,379	2.6	88,013	10,330	23,499	103,203	56,933	85.3	35.5
1986	36,074	2.7	95,745	6,282	28,114	111,786	61,600	85.7	37.8
1987	36,587	2.8	100,900	5,616	28,968	115,877	70,021	87.1	38.4
1988	36,645	2.8	104,131	5,547	27,429	121,684	73,981	85.6	39.6
1989	36,833	2.9	106,860	4,592	30,008	129,420	76,895	82.6	41.4
1990	37,973	3.3	124,350	8,132	29,216	135,253	87,139	91.9	42.5
1991	37,820	3.3	124,739	10,724	30,714	139,331	92,437	89.5	43.1
1992	37,281	3.3	123,623	11,895	31,632	147,028	88,821	84.1	44.8
1993	36,546	3.6	129,972	11,895	30,521	150,784	86,633	86.2	45.2
1994	37,885	3.4	127,376	1,679	39,688	158,242	93,773	80.5	46.8
1995	38,898	3.6	140,287	426	36,180	164,817	104,997	85.1	48.0
1996	40,671	3.9	157,176	4,010	34,163	169,202	123,045	92.9	48.6
1997	39,242	3.4	133,161	6,895	32,294	169,539	111,936	78.5	48.0
1998	41,457	4.0	164,553	3,618	32,165	176,540	128,496	93.2	49.3
1999	41,931	3.8	159,410	10,077	34,987	183,041	129,711	87.1	50.4
2000	39,202	3.5	138,751	8,252	34,595	186,539	108,485	74.4	50.7
2001	40,744	3.7	148,521	9,119	34,007	190,733	90,894	77.9	51.2
2002	40,591	3.8	153,571	15,777	35,068	193,310	70,302	79.4	51.3
2003	40,353	3.8	152,491	9,670	34,625	197,842	50,302	77.1	51.8
2004	40,263	3.9	156,170	4,900	35,010	201,615	34,817	77.5	52.2

표 3 지역별 옥수수 통계, 북미, 1960～2004년

	식부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연말재고량 (천톤)	자급률 (%)	1인당소비량 (kg/1인)
1960	34,503	3.1	105,290	6,381	593	92,981	51,598	113.2	343.8
1961	29,877	3.3	97,692	9,926	769	96,993	42,564	100.7	351.5
1962	29,130	3.4	97,903	10,197	1,025	96,267	35,340	101.7	342.3
1963	30,891	3.6	109,702	11,560	943	93,153	40,447	117.8	325.1
1964	29,872	3.3	97,346	14,032	479	92,394	30,451	105.4	316.6
1965	30,218	3.8	113,729	18,324	587	104,342	22,580	109.0	351.4
1966	30,895	3.8	115,747	13,596	519	103,758	21,942	111.6	343.6
1967	32,417	4.1	133,342	15,316	835	109,422	30,185	121.9	356.6
1968	30,644	4.0	123,600	14,003	845	111,672	28,722	110.7	358.3
1969	29,735	4.3	127,440	16,031	1,087	116,289	25,712	109.6	367.4
1970	31,711	3.7	117,006	13,378	927	112,655	17,419	103.9	350.1
1971	34,521	4.5	155,468	17,231	272	123,967	28,857	125.4	378.9
1972	31,312	4.9	152,362	28,998	1,401	133,446	18,321	114.2	401.7
1973	33,593	4.6	155,922	34,858	2,836	132,347	13,147	117.8	392.6
1974	34,766	3.7	129,821	28,388	3,088	102,150	14,811	127.1	298.8
1975	35,902	4.5	161,307	39,799	2,190	118,389	17,397	136.3	341.3
1976	37,514	4.6	173,111	43,022	2,004	120,180	30,542	144.0	341.6
1977	37,625	4.8	179,186	49,802	2,146	125,139	38,232	143.2	350.8
1978	37,891	5.3	198,847	54,355	2,030	139,877	44,670	142.2	386.6
1979	37,792	5.7	215,860	62,176	4,946	150,411	53,656	143.5	409.8
1980	38,584	4.8	184,801	60,468	5,076	143,218	38,664	129.0	384.6
1981	39,448	5.7	225,396	50,744	1,483	146,412	67,200	153.9	388.0
1982	36,535	6.1	222,694	47,653	4,602	156,522	91,393	142.3	409.3
1983	28,440	4.3	121,262	47,248	2,842	140,027	27,010	86.6	361.4
1984	36,588	5.8	211,559	46,990	2,320	149,865	43,475	141.2	381.8
1985	37,759	6.4	242,917	31,830	2,371	152,453	104,512	159.3	383.4
1986	34,880	6.5	224,856	39,445	3,518	169,434	125,823	132.7	420.6
1987	31,087	6.4	198,108	44,404	3,150	173,353	109,831	114.3	424.8
1988	30,568	4.6	140,744	50,523	3,909	152,992	50,231	92.0	370.1
1989	33,052	6.3	207,641	60,059	5,662	167,081	36,245	124.3	398.9
1990	34,757	6.4	222,701	44,765	2,302	175,569	41,925	126.8	413.3
1991	35,951	5.9	211,970	41,637	1,830	183,952	30,470	115.2	426.5
1992	37,562	7.0	264,233	42,770	1,783	197,597	56,480	133.7	451.3
1993	34,230	5.5	187,017	33,702	2,784	187,805	24,087	99.6	422.6
1994	38,337	7.3	279,479	59,114	4,537	210,286	42,022	132.9	466.7
1995	35,171	6.1	213,031	53,438	7,642	191,234	14,229	111.4	418.7
1996	38,722	6.7	260,982	47,152	4,380	207,486	25,942	125.8	448.2
1997	37,662	6.9	258,412	38,180	6,027	215,686	36,137	119.8	459.7
1998	38,352	7.2	274,623	52,876	7,030	217,857	48,649	126.1	458.4
1999	36,891	7.3	267,950	49,950	6,393	225,211	48,036	119.0	468.0
2000	37,548	7.4	276,598	48,473	8,950	232,225	51,804	119.1	476.8
2001	36,878	7.3	270,166	47,646	8,300	236,506	45,003	114.2	480.1
2002	36,370	7.0	256,046	41,237	9,489	238,024	31,952	107.6	478.0
2003	37,689	7.6	287,505	48,820	7,900	250,435	28,751	114.8	497.5
2004	38,545	8.0	307,415	53,310	9,180	256,459	35,236	119.9	504.1

표 4 지역별 옥수수 통계, 카리브해, 1960~2004년

	식부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연말재고량 (천톤)	자급률 (%)	1인당소비량 (kg/1인)
1960	507	1.1	547	18	68	597	0	91.6	29.5
1961	510	0.9	441	15	153	579	0	76.2	28.0
1962	504	0.9	436	9	130	557	0	78.3	26.4
1963	500	0.9	423	0	237	660	0	64.1	30.6
1964	498	0.8	410	0	240	650	0	63.1	29.4
1965	455	0.8	383	6	256	633	0	60.5	28.0
1966	426	0.8	350	2	270	618	0	56.6	26.7
1967	406	0.8	329	0	248	577	0	57.0	24.5
1968	354	0.8	279	1	215	493	0	56.6	20.5
1969	360	0.8	304	0	237	537	4	56.6	21.9
1970	371	0.8	310	0	304	614	4	50.5	24.7
1971	384	0.8	323	0	326	641	12	50.4	25.4
1972	393	0.9	333	0	276	614	7	54.2	23.9
1973	383	0.7	270	0	476	731	22	36.9	27.9
1974	394	0.7	276	0	514	795	17	34.7	29.9
1975	394	0.7	268	0	538	806	17	33.3	29.9
1976	377	0.6	239	0	612	848	20	28.2	30.9
1977	317	1.2	373	0	681	988	86	37.8	35.5
1978	321	1.1	350	0	690	1,054	71	33.2	37.4
1979	354	1.1	379	0	757	1,166	34	32.5	40.9
1980	364	1.2	446	0	782	1,230	31	36.3	42.8
1981	285	0.9	263	0	828	1,096	26	24.0	37.7
1982	287	0.9	254	0	919	1,110	35	22.9	37.7
1983	297	0.9	280	0	995	1,211	24	23.1	40.6
1984	322	1.0	311	0	931	1,127	56	27.6	37.2
1985	207	1.0	215	0	931	1,084	13	19.8	35.3
1986	270	0.9	252	0	1,019	1,227	69	20.5	39.4
1987	320	0.9	289	0	1,287	1,512	83	19.1	47.9
1988	291	0.8	235	0	1,398	1,605	118	14.6	50.2
1989	297	0.8	249	0	1,338	1,591	93	15.7	49.0
1990	297	0.9	251	0	814	1,051	106	23.9	32.0
1991	300	0.9	255	0	865	1,119	107	22.8	33.6
1992	304	0.9	259	0	1,072	1,339	99	19.3	39.8
1993	285	0.9	248	0	939	1,186	100	20.9	34.9
1994	292	0.8	244	0	1,180	1,424	100	17.1	41.5
1995	282	0.9	251	0	1,214	1,490	75	16.8	42.9
1996	377	0.8	297	0	1,247	1,544	75	19.2	44.0
1997	407	0.9	361	0	989	1,350	75	26.7	38.1
1998	460	0.9	416	0	1,172	1,563	100	26.6	43.7
1999	462	0.9	417	0	1,439	1,855	101	22.5	51.4
2000	462	0.9	415	0	1,403	1,812	107	22.9	49.8
2001	460	0.9	413	0	1,675	2,114	81	19.5	57.5
2002	462	0.9	415	0	1,509	1,980	25	21.0	53.4
2003	454	0.9	407	0	1,685	2,052	65	19.8	54.9
2004	429	0.9	382	0	1,785	2,177	55	17.5	57.7

표 5 지역별 옥수수 통계, 중미, 1960～2004년

	식부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연말재고량 (천톤)	자급률 (%)	1인당소비량 (kg/1인)
1960	1,409	0.9	1,252	38	42	1,309	140	95.6	104.8
1961	1,354	0.9	1,214	14	56	1,262	134	96.2	97.9
1962	1,412	1.0	1,341	36	75	1,354	160	99.0	101.9
1963	1,448	1.0	1,371	40	51	1,376	166	99.6	100.4
1964	1,468	1.0	1,416	77	96	1,415	186	100.1	100.1
1965	1,508	1.0	1,454	60	106	1,478	208	98.4	101.4
1966	1,529	1.0	1,501	36	50	1,449	274	103.6	96.4
1967	1,586	1.0	1,517	49	74	1,561	255	97.2	100.7
1968	1,595	1.1	1,678	49	77	1,799	162	93.3	112.5
1969	1,630	1.1	1,705	19	43	1,780	111	95.8	107.8
1970	1,467	1.2	1,706	63	71	1,703	122	100.2	100.1
1971	1,595	1.1	1,811	46	67	1,823	131	99.3	104.0
1972	1,659	0.9	1,449	16	178	1,706	36	84.9	94.6
1973	1,698	1.1	1,785	2	228	1,972	75	90.5	106.2
1974	1,715	1.0	1,726	10	131	1,892	30	91.2	98.9
1975	1,855	1.1	2,050	4	111	2,005	182	102.2	101.9
1976	1,545	1.2	1,809	10	96	2,008	69	90.1	99.2
1977	1,614	1.2	1,883	0	306	2,047	211	92.0	98.2
1978	1,553	1.4	2,183	1	175	2,383	185	91.6	111.2
1979	1,551	1.4	2,204	18	193	2,292	272	96.2	103.9
1980	1,618	1.3	2,146	10	274	2,411	271	89.0	106.5
1981	1,669	1.4	2,310	13	169	2,465	223	93.7	106.4
1982	1,681	1.3	2,217	23	354	2,436	206	91.0	103.0
1983	1,532	1.5	2,275	0	250	2,441	255	93.2	101.0
1984	1,618	1.5	2,464	35	158	2,525	301	97.6	102.0
1985	1,524	1.6	2,448	20	118	2,590	305	94.5	102.1
1986	1,539	1.5	2,332	0	259	2,639	201	88.4	101.4
1987	1,703	1.6	2,672	10	238	2,939	163	90.9	110.2
1988	1,749	1.6	2,748	0	345	3,120	151	88.1	114.2
1989	1,732	1.6	2,742	0	543	3,199	241	85.7	114.2
1990	1,729	1.6	2,787	3	570	3,290	292	84.7	114.4
1991	1,831	1.4	2,610	1	598	3,346	188	78.0	113.3
1992	1,837	1.6	2,952	3	699	3,594	190	82.1	118.6
1993	1,846	1.6	2,908	9	885	3,795	183	76.6	122.2
1994	1,814	1.5	2,636	69	1,092	3,705	137	71.1	116.4
1995	1,900	1.6	3,084	29	980	3,939	192	78.3	120.7
1996	1,890	1.6	2,970	104	1,524	4,267	312	69.6	127.6
1997	1,817	1.5	2,739	22	1,225	4,092	162	66.9	119.5
1998	1,838	1.4	2,626	15	1,650	4,286	137	61.3	122.2
1999	1,826	1.5	2,751	15	2,050	4,718	205	58.3	131.4
2000	1,824	1.6	2,851	10	2,111	4,876	281	58.5	132.7
2001	1,535	1.6	2,493	1	1,837	4,442	215	56.1	118.1
2002	1,758	1.6	2,726	0	1,980	4,658	238	58.5	121.2
2003	1,672	1.7	2,857	0	2,140	4,848	387	58.9	123.3
2004	1,657	1.7	2,840	0	2,140	4,973	394	57.1	123.8

표 6 지역별 옥수수 통계, 남미, 1960～2004년

	식부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연말재고량 (천톤)	자급률 (%)	1인당소비량 (kg/1인)
1960	11,690	1.4	16,215	1,918	53	14,353	2,219	113.0	98.0
1961	12,291	1.4	17,222	2,262	123	14,478	2,162	119.0	96.1
1962	12,860	1.4	17,464	2,784	112	14,265	2,148	122.4	92.2
1963	13,268	1.3	17,280	3,177	111	13,990	2,094	123.5	88.0
1964	14,169	1.4	20,108	3,478	208	15,452	3,674	130.1	94.5
1965	14,426	1.5	21,355	3,562	89	17,900	2,727	119.3	106.6
1966	15,192	1.6	23,828	5,691	104	17,818	4,307	133.7	103.3
1967	15,484	1.5	22,452	3,856	217	18,090	4,417	124.1	102.2
1968	15,701	1.4	22,624	5,105	568	20,500	2,677	110.4	112.8
1969	16,469	1.6	26,798	4,954	301	19,981	2,450	134.1	107.2
1970	17,187	1.6	27,299	7,436	480	20,000	2,759	136.5	104.7
1971	16,189	1.5	23,857	5,402	403	23,667	657	100.8	120.8
1972	15,757	1.7	25,994	2,989	885	21,248	1,378	122.3	105.8
1973	16,934	1.7	29,163	5,147	724	23,315	889	125.1	113.3
1974	16,100	1.7	27,143	7,305	752	22,922	1,291	118.4	108.8
1975	16,277	1.7	27,121	3,974	447	23,117	1,184	117.3	107.1
1976	16,560	1.9	30,760	6,747	977	25,132	1,359	122.4	113.8
1977	16,177	1.7	26,911	7,332	1,153	24,073	967	111.8	106.6
1978	16,669	1.7	28,952	6,215	2,357	25,810	485	112.2	111.7
1979	16,630	1.8	30,596	3,461	4,028	29,489	1,507	103.8	124.8
1980	18,573	2.1	39,199	9,017	3,715	31,345	2,274	125.1	129.7
1981	18,891	1.9	36,353	5,668	1,680	31,213	2,831	116.5	126.2
1982	16,285	2.0	32,258	6,958	1,789	30,172	962	106.9	119.3
1983	17,497	2.0	34,397	6,186	2,302	30,564	985	112.5	118.2
1984	17,685	2.1	37,316	7,154	1,295	31,398	1,870	118.8	119.0
1985	18,541	2.0	37,293	7,482	2,370	32,437	1,876	115.0	120.5
1986	20,194	2.0	40,856	3,970	2,002	37,183	2,510	109.9	135.3
1987	18,971	2.1	39,541	4,233	1,088	35,248	3,352	112.2	125.8
1988	17,574	2.1	36,657	2,713	508	33,696	4,935	108.8	117.9
1989	16,670	2.0	32,949	2,873	1,740	35,168	1,932	93.7	120.6
1990	18,028	2.1	36,960	3,599	2,268	35,245	1,603	104.9	118.7
1991	18,755	2.5	46,106	5,959	2,829	39,837	4,409	115.7	131.8
1992	17,228	2.6	44,416	4,871	3,880	42,822	5,113	103.7	139.2
1993	18,530	2.6	48,063	4,403	4,704	47,261	6,415	101.7	151.0
1994	19,361	2.8	54,500	6,484	5,801	50,900	9,347	107.1	159.9
1995	18,951	2.6	49,070	7,428	4,367	50,531	4,283	97.1	156.1
1996	19,735	2.9	57,011	11,061	5,451	50,995	4,103	111.8	154.9
1997	16,871	3.3	55,160	13,046	6,805	50,583	3,364	109.0	151.2
1998	16,976	3.0	51,269	8,035	6,634	50,961	2,334	100.6	150.0
1999	18,116	3.0	54,637	9,368	7,709	50,230	1,783	108.8	145.7
2000	18,206	3.5	63,209	16,492	6,233	51,406	2,903	123.0	147.0
2001	16,840	3.4	56,844	12,834	5,186	49,845	1,728	114.0	140.6
2002	17,866	3.7	66,892	16,181	5,486	52,240	5,344	128.0	145.3
2003	17,205	3.6	61,346	16,420	5,680	54,540	4,510	112.5	149.7
2004	18,045	3.6	65,605	13,710	5,480	55,860	3,925	117.4	151.4

표 7 지역별 옥수수 통계, 유럽연합, 1960~2004년

	식부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연말재고량 (천톤)	자급률 (%)	1인당소비량 (kg/1인)
1960	3,186	2.7	8,633	796	8,989	17,137	1,802	50.4	54.2
1961	3,367	2.5	8,560	489	11,471	18,829	2,289	45.5	59.1
1962	3,149	2.3	7,095	570	13,096	20,140	1,917	35.2	62.6
1963	3,298	3.0	9,757	1,292	15,224	23,373	2,136	41.7	72.1
1964	3,194	2.6	8,381	1,473	14,514	22,254	1,500	37.7	68.0
1965	3,081	2.9	8,872	1,958	18,683	25,096	1,948	35.4	76.1
1966	3,134	3.3	10,250	2,181	18,327	25,867	2,494	39.6	77.9
1967	3,181	3.3	10,623	1,667	19,015	28,075	2,329	37.8	84.0
1968	3,228	3.9	12,426	2,913	17,622	27,492	1,847	45.2	81.8
1969	3,453	4.0	13,821	3,124	17,355	27,631	2,327	50.0	81.7
1970	3,714	4.4	16,368	4,637	18,051	29,566	2,230	55.4	86.8
1971	3,970	4.5	17,823	4,789	19,151	32,741	2,390	54.4	95.5
1972	4,127	4.2	17,344	95	17,064	33,784	2,919	51.3	97.9
1973	4,169	4.9	20,552	410	19,155	38,534	3,682	53.3	111.1
1974	4,061	4.5	18,178	783	19,200	35,431	4,846	51.3	101.7
1975	4,098	4.4	17,867	1,076	19,507	37,991	3,153	47.0	108.6
1976	3,468	4.3	14,729	465	26,353	40,285	3,485	36.6	114.8
1977	3,817	5.2	19,662	74	20,479	39,351	4,201	50.0	111.8
1978	3,963	5.2	20,472	67	21,196	41,740	4,062	49.0	118.2
1979	4,209	5.3	22,161	100	21,200	43,242	4,081	51.2	122.1
1980	4,007	5.4	21,640	100	20,500	41,863	4,258	51.7	117.8
1981	3,833	5.8	22,272	99	18,000	39,985	4,446	55.7	112.2
1982	3,957	6.1	24,108	284	13,734	37,783	4,221	63.8	105.8
1983	3,825	6.1	23,275	422	11,153	35,618	2,609	65.3	99.6
1984	3,989	6.2	24,690	559	8,975	32,702	3,013	75.5	91.3
1985	4,110	6.7	27,489	386	4,943	30,765	4,294	89.4	85.8
1986	4,069	6.6	26,947	1,541	3,292	29,755	3,237	90.6	82.8
1987	3,918	7.1	27,671	1,104	4,307	30,830	3,281	89.8	85.6
1988	4,251	7.2	30,518	2,430	2,560	30,641	3,288	99.6	84.8
1989	4,043	7.0	28,384	1,389	3,851	31,308	2,826	90.7	86.2
1990	3,636	6.5	23,523	155	3,142	27,925	1,411	84.2	76.5
1991	4,040	7.0	28,298	420	1,757	28,714	2,332	98.6	78.3
1992	3,946	7.7	30,284	1,256	1,611	28,934	4,037	104.7	78.5
1993	3,844	7.9	30,486	1,722	2,343	31,991	3,153	95.3	86.4
1994	3,769	7.5	28,349	347	3,831	32,238	2,748	87.9	86.8
1995	3,717	7.8	29,096	388	4,486	33,936	2,006	85.7	91.1
1996	4,056	8.5	34,415	236	2,421	36,018	2,588	95.5	96.4
1997	4,224	9.0	38,165	382	2,055	39,071	3,355	97.7	104.3
1998	4,091	8.5	34,920	99	2,716	38,578	2,314	90.5	102.8
1999	5,537	8.2	45,229	2,121	3,049	46,142	2,919	98.0	122.6
2000	5,648	7.8	44,259	1,016	3,800	47,888	2,074	92.4	126.9
2001	6,178	8.1	49,879	2,849	3,801	50,245	2,660	99.3	132.8
2002	6,023	8.2	49,078	1,995	4,327	49,244	4,826	99.7	129.8
2003	6,001	6.6	39,497	400	5,700	46,500	3,123	84.9	122.3
2004	6,260	8.2	51,425	500	2,500	51,650	4,898	99.6	135.5

표 8 지역별 옥수수 통계, 기타 서유럽, 1960～2004년

	식부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연말재고량 (천톤)	자급률 (%)	1인당소비량 (kg/1인)
1960	1	4.0	4	15	139	131	46	3.1	0.4
1961	2	4.0	8	13	201	190	52	4.2	0.6
1962	3	4.3	13	66	225	182	42	7.1	0.6
1963	3	4.3	13	52	246	211	38	6.2	0.6
1964	4	4.8	19	42	260	244	31	7.8	0.7
1965	4	4.5	18	0	295	301	43	6.0	0.9
1966	4	4.8	19	77	326	263	48	7.2	0.8
1967	4	5.5	22	92	286	224	40	9.8	0.7
1968	4	6.0	24	85	281	221	39	10.9	0.6
1969	7	5.6	39	11	317	320	64	12.2	0.9
1970	9	6.1	55	0	293	353	59	15.6	1.0
1971	14	6.4	90	0	305	396	58	22.7	1.1
1972	15	4.8	72	0	349	414	65	17.4	1.2
1973	20	6.9	138	0	390	507	86	27.2	1.4
1974	22	5.8	128	0	351	481	84	26.6	1.3
1975	22	6.5	143	0	347	456	118	31.4	1.3
1976	18	6.3	114	0	332	451	113	25.3	1.2
1977	17	6.5	111	0	312	424	112	26.2	1.2
1978	16	6.6	105	0	324	427	114	24.6	1.2
1979	18	7.5	135	0	325	415	159	32.5	1.1
1980	20	4.6	91	0	286	405	131	22.5	1.1
1981	18	7.7	139	0	358	513	115	27.1	1.4
1982	20	8.7	173	0	275	468	95	37.0	1.3
1983	19	7.3	139	0	316	456	92	30.5	1.2
1984	18	7.0	126	0	253	415	115	30.4	1.1
1985	19	8.3	157	0	167	351	102	44.7	0.9
1986	22	7.9	174	0	181	351	104	49.6	0.9
1987	20	7.2	144	0	194	353	119	40.8	0.9
1988	25	9.5	237	0	130	385	129	61.6	1.0
1989	28	9.3	259	0	64	317	135	81.7	0.8
1990	27	8.6	233	0	40	283	125	82.3	0.8
1991	27	8.4	226	0	30	256	118	88.3	0.7
1992	32	5.8	187	0	178	383	100	48.8	1.0
1993	21	8.9	187	0	140	327	100	57.2	0.8
1994	29	8.6	249	0	82	321	110	77.6	0.8
1995	26	8.7	225	0	52	277	110	81.2	0.7
1996	23	8.8	203	0	114	307	120	66.1	0.8
1997	20	9.7	194	0	103	326	91	59.5	0.8
1998	21	9.3	195	0	82	308	60	63.3	0.8
1999	22	9.0	198	0	91	296	53	66.9	0.8
2000	22	10.0	219	0	66	281	57	77.9	0.7
2001	24	9.3	222	0	72	283	62	78.4	0.7
2002	25	8.8	220	0	85	300	67	73.3	0.8
2003	25	8.8	220	0	85	300	72	73.3	0.8
2004	25	8.8	220	0	85	300	77	73.3	0.8

표 9 지역별 옥수수 통계, 동유럽, 1960~2004년

	식부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연말재고량 (천톤)	자급률 (%)	1인당소비량 (kg/1인)
1960	5,782	1.9	10,716	744	235	10,270	50	104.3	103.5
1961	5,577	1.8	10,076	1,116	381	9,522	50	105.8	94.9
1962	5,190	1.9	9,878	999	404	9,338	50	105.8	92.3
1963	5,496	2.1	11,518	1,343	376	10,446	50	110.3	102.3
1964	5,338	2.3	12,463	1,076	788	12,241	50	101.8	119.0
1965	5,231	2.1	10,869	727	620	10,836	50	100.3	104.5
1966	5,255	2.7	14,378	819	286	13,706	50	104.9	131.2
1967	5,186	2.4	12,628	911	409	12,259	50	103.0	116.5
1968	5,309	2.4	12,924	594	651	12,623	70	102.4	118.8
1969	5,261	2.9	15,121	668	265	14,390	50	105.1	134.3
1970	5,038	2.6	13,209	673	537	13,129	23	100.6	121.7
1971	5,242	2.9	15,383	452	518	15,431	22	99.7	141.9
1972	5,413	3.4	18,611	552	727	18,202	28	102.2	166.1
1973	5,179	3.1	16,197	932	1,008	16,311	75	99.3	147.7
1974	5,058	3.1	15,495	800	2,101	16,711	100	92.7	150.0
1975	5,491	3.5	19,442	2,108	2,042	19,953	175	97.4	177.6
1976	5,665	3.6	20,236	548	1,675	21,338	115	94.8	188.2
1977	5,483	3.5	19,116	1,125	2,690	20,951	75	91.2	183.2
1978	5,221	3.7	19,469	821	2,805	21,561	118	90.3	187.2
1979	5,500	4.3	23,435	1,290	4,659	26,677	192	87.8	229.9
1980	5,215	3.9	20,508	1,150	5,353	24,738	220	82.9	211.8
1981	5,167	4.2	21,667	1,413	1,719	22,323	617	97.1	190.0
1982	4,623	5.2	24,200	1,750	1,140	22,791	1,331	106.2	192.9
1983	4,737	4.6	21,783	1,310	670	21,789	778	100.0	183.4
1984	4,845	4.8	23,199	900	740	22,458	1,438	103.3	188.3
1985	4,684	4.1	19,097	300	1,505	19,960	1,712	95.7	166.5
1986	4,803	4.7	22,582	788	372	20,782	2,976	108.7	172.6
1987	4,663	4.3	20,098	262	723	21,334	2,224	94.2	176.5
1988	4,605	3.9	18,022	519	1,705	19,248	2,187	93.6	158.9
1989	4,496	3.7	16,474	156	1,398	16,589	3,310	99.3	136.7
1990	4,076	3.2	12,950	0	947	15,239	1,965	85.0	125.4
1991	4,391	4.9	21,610	2,425	326	18,490	2,986	116.9	151.7
1992	5,944	2.7	15,753	609	1,954	19,576	1,028	80.5	160.4
1993	5,607	2.9	16,284	406	696	16,771	841	97.1	137.7
1994	5,438	3.2	17,348	969	822	17,424	689	99.6	143.3
1995	5,297	3.6	19,270	413	861	18,994	1,336	101.5	156.6
1996	5,499	3.7	20,374	1,736	1,160	19,489	1,618	104.5	160.9
1997	5,259	4.8	25,334	2,459	894	21,592	3,796	117.3	178.4
1998	5,235	3.7	19,242	2,560	625	19,267	1,836	99.9	159.2
1999	3,870	3.8	14,635	509	209	13,545	2,036	108.0	112.0
2000	3,695	2.1	7,725	70	647	9,420	918	82.0	77.9
2001	3,735	2.8	10,280	201	339	10,261	1,075	100.2	84.8
2002	3,440	3.2	11,050	541	343	10,665	1,265	103.6	88.2
2003	3,505	2.7	9,600	225	545	10,780	400	89.1	89.2
2004	4,060	3.4	13,850	1,100	290	11,630	1,810	119.1	96.2

표 10 지역별 옥수수 통계, 구소련연합, 1960～2004년

	식부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연말재고량 (천톤)	자급률 (%)	1인당소비량 (kg/1인)
1960	5,086	1.9	9,823	390	133	9,566	0	102.7	44.8
1961	7,145	2.4	17,113	1,129	24	16,008	0	106.9	73.6
1962	7,005	2.2	15,474	832	5	14,647	0	105.6	66.2
1963	6,995	1.6	11,143	712	127	10,558	0	105.5	47.0
1964	5,114	2.7	13,849	533	2	13,318	0	104.0	58.5
1965	3,177	2.5	8,030	227	23	7,826	0	102.6	34.0
1966	3,229	2.6	8,416	177	186	8,425	0	99.9	36.1
1967	3,485	2.6	9,163	201	361	9,323	0	98.3	39.6
1968	3,350	2.6	8,828	254	432	9,006	0	98.0	37.8
1969	4,167	2.9	11,954	129	110	11,935	0	100.2	49.7
1970	3,353	2.8	9,428	281	271	9,418	0	100.1	38.8
1971	3,332	2.6	8,597	128	2,106	10,575	0	81.3	43.2
1972	4,012	2.5	9,830	249	4,101	13,682	0	71.8	55.3
1973	4,031	3.3	13,216	365	4,797	17,648	0	74.9	70.7
1974	3,955	3.1	12,104	450	2,200	13,854	0	87.4	55.0
1975	2,652	2.8	7,328	0	12,300	19,628	0	37.3	77.1
1976	3,303	3.1	10,138	0	5,000	15,138	0	67.0	58.9
1977	3,362	3.3	10,979	0	10,857	21,836	0	50.3	84.2
1978	2,535	3.5	8,951	0	9,602	18,553	0	48.2	70.9
1979	2,667	3.2	8,400	0	9,579	22,950	0	36.6	87.0
1980	2,977	3.2	9,454	0	15,100	21,254	0	44.5	79.9
1981	3,545	2.7	9,400	0	13,400	27,100	0	34.7	101.0
1982	4,161	3.5	14,700	0	6,500	22,100	0	66.5	81.7
1983	3,900	3.4	13,300	0	9,500	22,000	0	60.5	80.6
1984	3,919	3.5	13,600	0	20,300	32,900	1,000	41.3	119.4
1985	4,482	3.2	14,400	0	10,300	24,800	1,000	58.1	89.2
1986	4,223	3.0	12,479	0	7,600	19,579	1,000	63.7	69.8
1987	4,461	3.3	14,494	2,060	9,690	20,857	2,142	69.5	73.7
1988	4,318	3.6	15,685	1,540	20,235	32,345	4,177	48.5	113.3
1989	4,000	3.7	14,939	960	18,380	32,398	4,138	46.1	112.9
1990	2,735	3.5	9,590	820	10,670	20,429	3,149	46.9	70.7
1991	2,865	3.3	9,521	510	10,079	19,903	2,336	47.8	68.5
1992	2,574	2.7	6,851	220	6,780	13,596	2,151	50.4	46.5
1993	2,813	3.1	8,717	17	3,185	11,641	2,395	74.9	39.8
1994	1,787	2.2	3,891	13	272	5,633	912	69.1	19.2
1995	2,392	2.8	6,617	83	204	6,227	1,423	106.3	21.3
1996	1,875	2.4	4,533	36	381	5,363	938	84.5	18.4
1997	2,857	3.6	10,216	649	232	8,101	2,636	126.1	27.8
1998	2,245	2.2	4,978	432	631	6,493	1,320	76.7	22.3
1999	2,038	2.3	4,595	105	1,055	5,925	940	77.6	20.4
2000	2,728	2.7	7,246	459	346	6,628	1,445	109.3	22.8
2001	2,551	2.6	6,509	371	666	6,752	1,484	96.4	23.2
2002	2,497	3.3	8,143	848	165	7,515	1,445	108.4	25.9
2003	3,370	3.3	11,085	1,525	650	10,600	1,030	104.6	36.5
2004	3,690	2.9	10,750	1,525	760	10,195	820	105.4	35.1

표 11 지역별 옥수수 통계, 아프리카, 1960～2004년

	식부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연말재고량 (천톤)	자급률 (%)	1인당소비량 (kg/1인)
1960	10,782	1.2	13,213	1,171	102	10,827	1,221	122.0	38.3
1961	13,803	1.1	15,468	2,349	668	13,222	1,107	117.0	45.7
1962	13,810	1.2	16,174	3,208	250	13,563	899	119.3	45.8
1963	14,614	1.0	14,762	2,901	520	14,190	629	104.0	46.8
1964	14,184	1.1	15,115	1,164	341	15,176	347	99.6	48.8
1965	14,586	1.1	16,179	714	779	15,380	805	105.2	48.3
1966	15,966	1.4	22,794	1,385	432	16,846	3,194	135.3	51.6
1967	15,690	1.1	17,426	4,373	351	16,650	883	104.7	49.7
1968	15,240	1.2	18,516	3,090	83	16,781	995	110.3	48.8
1969	15,597	1.2	19,133	2,064	725	17,800	910	107.5	50.5
1970	15,779	1.4	21,975	1,403	345	17,864	1,851	123.0	49.5
1971	16,440	1.4	23,289	3,666	353	17,947	2,971	129.8	48.4
1972	15,079	1.1	17,118	4,442	349	18,285	1,269	93.6	48.1
1973	16,201	1.6	25,387	1,094	929	18,901	4,549	134.3	48.5
1974	16,416	1.4	23,100	4,334	1,058	20,438	4,030	113.0	51.0
1975	16,925	1.4	23,284	2,379	940	22,521	3,771	103.4	54.8
1976	17,070	1.5	25,334	1,723	964	22,199	4,952	114.1	52.6
1977	17,964	1.4	25,752	3,207	1,380	22,960	5,406	112.2	52.9
1978	17,710	1.4	24,699	3,206	1,385	24,898	4,005	99.2	55.8
1979	18,613	1.5	27,957	3,432	2,712	26,467	4,235	105.6	57.6
1980	19,010	1.7	32,585	4,218	3,445	26,898	7,937	121.1	56.9
1981	19,615	1.4	26,915	5,166	3,879	29,113	5,206	92.5	59.9
1982	19,210	1.1	21,783	2,868	4,256	29,107	2,697	74.8	58.2
1983	19,520	1.2	22,649	632	6,865	28,646	2,362	79.1	55.6
1984	19,839	1.4	28,567	910	5,322	30,237	4,362	94.5	57.0
1985	20,346	1.5	30,206	2,215	3,961	29,960	4,521	100.8	54.9
1986	20,855	1.4	29,110	3,255	4,415	32,053	3,733	90.8	57.1
1987	20,501	1.5	30,131	933	3,548	32,712	3,523	92.1	56.7
1988	21,200	1.7	36,581	2,497	3,437	34,666	4,467	105.5	58.4
1989	21,061	1.6	34,616	4,171	4,006	37,070	4,552	93.4	60.8
1990	21,022	1.7	35,070	1,240	4,534	40,600	2,624	86.4	64.8
1991	21,559	1.3	28,818	898	8,922	39,028	2,710	73.8	60.5
1992	21,923	1.6	35,667	270	7,796	38,392	3,970	92.9	58.0
1993	22,553	1.8	40,353	4,597	6,328	40,602	4,680	99.4	59.8
1994	21,845	1.5	32,883	2,786	5,975	41,586	2,006	79.1	59.7
1995	23,575	1.8	41,828	2,237	4,974	42,359	2,644	98.7	59.3
1996	23,949	1.7	41,579	2,085	7,820	45,538	4,390	91.3	62.3
1997	23,117	1.6	36,622	1,156	6,884	43,981	2,426	83.3	58.7
1998	23,659	1.6	38,817	900	7,563	45,631	2,745	85.1	59.5
1999	23,674	1.8	43,018	1,036	8,626	47,838	4,433	89.9	60.9
2000	23,314	1.7	38,582	1,565	10,217	49,594	2,710	77.8	61.7
2001	24,287	1.7	41,100	1,450	10,360	50,300	3,486	81.7	61.2
2002	23,797	1.7	39,817	1,191	10,692	47,987	3,866	83.0	57.1
2003	25,192	1.6	41,037	1,050	10,015	50,595	3,423	81.1	59.0
2004	24,497	1.7	41,183	1,100	10,495	50,676	3,325	81.3	57.9

표 12 지역별 옥수수 통계, 중동, 1960～2004년

	식부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연말재고량 (천톤)	자급률 (%)	1인당소비량 (kg/1인)
1960	719	1.1	785	0	146	949	67	82.7	12.0
1961	731	1.4	1,037	0	203	1,178	76	88.0	14.5
1962	695	1.2	839	0	279	1,106	92	75.9	13.3
1963	696	1.5	1,024	0	293	1,272	76	80.5	14.8
1964	708	1.5	1,037	2	235	1,280	102	81.0	14.5
1965	680	1.2	836	0	268	1,124	63	74.4	12.4
1966	685	1.5	1,036	4	242	1,281	46	80.9	13.8
1967	708	1.6	1,122	2	247	1,294	120	86.7	13.5
1968	688	1.5	1,046	1	264	1,329	103	78.7	13.6
1969	690	1.5	1,045	1	234	1,290	51	81.0	12.8
1970	687	1.6	1,092	0	206	1,311	64	83.3	12.7
1971	698	1.8	1,234	3	345	1,513	127	81.6	14.2
1972	721	1.6	1,185	1	355	1,589	43	74.6	14.5
1973	727	1.7	1,198	0	392	1,559	46	76.8	13.8
1974	726	1.9	1,398	1	688	1,968	138	71.0	16.9
1975	736	1.9	1,409	0	762	2,102	163	67.0	17.5
1976	760	2.1	1,558	10	977	2,388	206	65.2	19.3
1977	766	2.1	1,606	25	1,200	2,692	262	59.7	21.1
1978	769	2.1	1,583	20	1,350	3,024	221	52.3	23.0
1979	706	2.2	1,556	100	1,738	3,128	375	49.7	23.1
1980	739	2.0	1,506	98	1,982	3,533	332	42.6	25.2
1981	696	2.0	1,396	72	2,422	3,682	291	37.9	25.4
1982	702	2.2	1,574	62	2,890	3,981	323	39.5	26.5
1983	670	2.5	1,663	0	2,731	3,816	432	43.6	24.6
1984	685	2.5	1,704	31	2,737	4,303	527	39.6	26.8
1985	721	2.8	2,043	0	3,047	4,951	394	41.3	29.9
1986	756	3.4	2,582	5	3,156	5,594	532	46.2	32.7
1987	755	3.5	2,656	0	2,987	5,790	348	45.9	32.9
1988	780	3.2	2,502	4	3,261	5,771	336	43.4	31.8
1989	799	2.8	2,226	14	4,139	6,428	314	34.6	34.5
1990	846	3.1	2,606	8	2,733	5,474	172	47.6	28.5
1991	883	3.3	2,912	8	3,190	6,096	172	47.8	31.2
1992	915	3.3	3,052	8	3,897	6,649	465	45.9	33.1
1993	941	3.5	3,302	89	3,237	6,566	350	50.3	32.1
1994	732	3.4	2,457	36	4,639	6,847	563	35.9	32.9
1995	815	3.3	2,712	10	4,664	7,289	640	37.2	34.2
1996	874	3.6	3,132	3	6,182	8,563	1,341	36.6	39.4
1997	933	3.6	3,332	1	4,863	8,605	890	38.7	38.7
1998	951	3.8	3,639	5	5,516	9,089	864	40.0	40.1
1999	824	3.7	3,019	3	6,624	9,649	855	31.3	41.7
2000	798	3.5	2,810	7	6,096	9,166	588	30.7	38.8
2001	766	3.5	2,707	8	6,708	9,348	636	29.0	38.8
2002	808	3.7	2,983	9	7,668	9,699	1,608	30.8	39.5
2003	958	3.8	3,682	0	7,435	11,292	1,383	32.6	45.1
2004	971	3.8	3,732	0	7,500	11,207	1,408	33.3	44.0

표 13 지역별 옥수수 통계, 오세아니아, 1960～2004년

	식부면적 (천ha)	단수 (톤/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연말재고량 (천톤)	자급률 (%)	1인당소비량 (kg/1인)
1960	78	2.2	169	0	0	169	35	100.0	10.8
1961	88	2.3	200	0	0	185	40	108.1	11.6
1962	88	2.3	204	10	0	204	40	100.0	12.5
1963	91	2.1	190	0	2	196	35	96.9	11.7
1964	90	2.2	199	1	1	202	35	98.5	11.8
1965	83	1.7	144	0	2	158	20	91.1	9.1
1966	85	2.5	208	2	1	191	40	108.9	10.8
1967	87	2.5	217	3	8	220	40	98.6	12.2
1968	73	2.7	200	0	3	207	35	96.6	11.2
1969	88	2.9	251	1	1	219	45	114.6	11.6
1970	98	3.2	313	22	1	269	50	116.4	13.9
1971	93	3.6	330	41	1	337	35	97.9	17.1
1972	72	3.6	257	9	1	272	18	94.5	13.5
1973	64	3.7	236	3	1	246	8	95.9	12.0
1974	72	4.0	291	28	1	238	24	122.3	11.4
1975	73	4.3	315	11	2	299	8	105.4	14.1
1976	82	4.3	354	80	2	282	25	125.5	13.1
1977	70	4.4	305	46	4	266	28	114.7	12.2
1978	72	4.8	348	66	4	240	74	145.0	10.9
1979	73	4.2	307	44	3	257	71	119.5	11.5
1980	74	4.4	325	48	14	290	79	112.1	12.8
1981	80	4.8	382	25	11	377	72	101.3	16.3
1982	71	4.0	282	58	15	285	26	98.9	12.1
1983	90	4.9	437	53	12	305	69	143.3	12.8
1984	120	3.7	445	146	34	358	41	124.3	14.8
1985	97	4.5	436	92	5	373	8	116.9	15.2
1986	85	4.9	412	19	5	335	42	123.0	13.4
1987	79	5.3	416	62	17	399	27	104.3	15.7
1988	73	5.4	391	20	23	387	39	101.0	15.0
1989	67	5.5	366	36	28	378	19	96.8	14.4
1990	70	5.2	367	18	22	369	19	99.5	13.9
1991	71	6.5	463	19	4	453	16	102.2	16.8
1992	66	5.7	375	30	23	367	17	102.2	13.4
1993	62	6.8	419	23	14	426	17	98.4	15.3
1994	68	5.9	402	9	110	495	15	81.2	17.6
1995	74	6.4	471	11	21	470	20	100.2	16.4
1996	82	6.6	543	20	6	529	20	102.6	18.2
1997	72	5.8	417	15	1	405	11	103.0	13.7
1998	79	6.1	483	24	13	457	11	105.7	15.3
1999	76	7.3	551	52	16	510	12	108.0	16.8
2000	90	5.4	490	57	14	455	13	107.7	14.8
2001	108	5.6	602	44	22	555	11	108.5	17.8
2002	75	6.1	455	92	63	450	13	101.1	14.3
2003	94	5.7	537	20	20	535	15	100.4	16.7
2004	95	5.7	545	20	20	545	15	100.0	16.9

자료 : http://www.fas.usda.gov/psd/complete.files/default.asp에서

M45-52 세계농업뉴스 제52호 (2004. 12)

등록 제6-0007호 (1979. 5. 25)
인쇄 2004년 12월
발행 2004년 12월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